

일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7. 10 Vol. 190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문정수 전 부산시장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가을달 휘영청 밝으면

여화동동 이야기 국악 _ 우리 음악학자들은 하늘을 어떻게 보았을까?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오스트리아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이홍렬이 만나는

11시 토크 콘서트



토크진행 · 이홍렬(방송인)

- 대담자 **전봉진**(동국대학교 교수, 박물관장)
이경혜(부산점자도서관 관장)
- 협연자 **김혜란**(노래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준보유자)
곽은아(가야금 - 이화여대 교수)
- 연 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 10. 5 (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 | 부산일보사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문의 |

- 부산문화회관 625-8130 www.bsculture.busan.kr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 607-6110 www.bsgugag.com

입장권 | 균일 15,000원

- ※ 정기회원 : 홍보부에 예약 후 계좌입금회원에 한하여 30% 할인 (1인 4매)
- ※ 단체관람 : 30명 이상 단체신청시 10% 할인



박정원 (Sop.)



류현수 (M. Sop.)



이은민 (Ten.)



박대용 (Bar.)



장사익 (소리)

Korea Fantasy in Busan

— 2007 부산국제합창제 전야 대 음악회 —

코리아 환타지 인 부산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대 합창! 각 대륙의 연합합창단 300여명이 전하는 평화와 환희의 메시지

안익태의 '한국환상곡' 민족의 슬기와 강인한 의지를 그린 대 서사시

'장사익의 노래' 이 시대 최고의 가객이 부르는 한국인의 애잔한 정서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고뇌를 뚫고 환희에 이르는 평화의 메세지

2007년 10월 31일 (수)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 오충근 (고신대 교수)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 임병원)
 합창 | 세계 각국의 연합합창단 300여명
 출연 | 박정원(Sop.) 류현수(M. Sop.)
 이은민(Ten.) 박대용(Bar.)
 특별출연 | 장사익(소리)
 주최 | 한국합창조직위원회 부산일보
 주관 | 부산광역시 문화관광부
 후원 | 부산광역시 문화관광부
 행사문의 | 051) 622-0534
 입장권예매 | TICKET365 T.1588-2528 KNN T.1577-7600
 입장권 | 1층석: 5만원 · 2층석: 3만원



지휘 | 오충근 (고신대 교수)



시민과 함께하는 클래식 가을산책

해설 윤성원 / 피아노 이현주

오보에 류재진 바순 윤태은
비리톤 강재진 오보에 김미영
오보에 박선영

더블리드앙상블 특별초청 연주회 Double Reed Ensemble Concert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보에 주자로 활동 중인 류재진을 중심으로 부산 관악악대에서 더블리드를 사용하는 오보에, 잉글리시호른, 바순, 콘트라바순 등의 악기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로 구성된 연주단체이다.

(사)부산광역시음악협회 공동주최 한국예술부산광역시공연협회 후원

10/2

가을과 사랑 그리고 나의 이야기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Soprano EOM Nam-Yee Recital

피아노 백현주 정윤 이재선

해설 오동주

10/9

PBC화요음악회 50회 기념음악회 백재진교수의 실내악시리즈2)

김일주, 홍기정, 신나영, 김미식, 도수경의 이야기

Fantastic Piano Quintet' Night

피아노5중주의 밤

해설 박진홍

Pi. 김일주 Vn. 홍기정 Vn. 신나영 Va. 김미식 Vc. 도수경

10/16

부·울·경을 연결하는 음악 네트워크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음악회

2007.10

피비씨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가톨릭소극장 051-462-1870 www.booscenter.or.kr

PBC TUESDAY CONCERT

음악감독 윤성원

테너 김정호 제4회 성가독창회 Tenor Kim, Jung-Ho 4th Recital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해설 황시내

피아노 오채원

10/23

블루클라시아 창단연주회 BlueClasia 1st Concert

가슴으로 가을을 노래하다

지휘 김지호 반주 최혜림
해설 우경준

10/30

이 음악회는 라디오 FM(부산·경남 FM101.1, 울산 94.3MHz)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실황녹음 방송됩니다.

www.birdclassic.co.kr

PBC 화요음악회 녹음은 클래식음악 녹음전문기업 Bird Classic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www.birdclassic.co.kr

이제,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DVD로 소장하십시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 음반 녹음 •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DVD, SVHS) • 콘서트 촬영

051-744-1150 / 011-562-8773

BIRD classic 부산시 남구 대연동 55-12 2층

www.birdclassic.co.kr

이제,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DVD로 소장하십시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 음반 녹음 •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DVD, SVHS) • 콘서트 촬영

051-744-1150 / 011-562-8773

부산문화회관

10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10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 필 앙상블연주회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과 여성적인 서정성이 잘 어우러진 품격 있는 연주를 들려 주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의 연주회.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중 제1악장

슈뢰더/아이네 클라이네 라흐무지크 중 제1악장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중 '갈대 피리의 춤' - '꽃의 왈츠' - '러시아 춤'

소스타코비치/재즈 오케스트라 모음곡 제2번 中 왈츠 II

멘켄/인어공주 등 수곡

- 연주/김은정, 최방주, 한아름, 양혜원(이상 바이올린), 최영화, 박소영(이상 비올라), 전수정(첼로), 임미형(더블베이스), 이은정(피아노)

※ 해설/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가야금연주단 연주회

강봉천/25현 이종주 '바다에 피는 꽃'

지원석/현향신화

박경훈(편곡)/비틀즈(Beatles)와 가야금이 만났을 때 'Twist and shout' 'Let it be' 등 '베사매무초', '키사스키사스', 'Under the sea'

신민요/배 띄워라, 동해바다

●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공연

기악, 가야금병창, 창악, 창극, 무용, 시조, 경기민요, 풍물분과 등 8개분과 300여명이 국악보급 및 대중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가야금 병창/심청가 중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대목' (소리/강명옥)

민요 '동백타령' (소리/조정례, 신수방)

판소리/흥부가 중 '흥부가 형집에 가 비는 대목' (창/이정하, 고수/김정애)

장구춤(춤/이혜영, 이현경, 박삿별, 박한영, 김지은)

※ 음악반주 및 해설/송재운(대금), 김정애(장구), 장준영(해설)

●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멋든춤(춤/이정인)

'춘향전' 중 '사랑가' (춤/권봉정, 김기원)

설장고춤(춤/김윤호 · 악사/이창규, 허태성, 류권홍, 최의옥)

춘광여정(춤/김공주, 정수민, 박창희, 오수연, 김주연)

춘접무(春蝶舞)(춤/강모세, 안주희)

화중신선(춤/서정숙, 김주령, 김동숙, 이현숙, 정진희 · 악사/김미란, 김진영, 허태성, 김주연)

※ 안무/홍기태

※ 훈련지도 : 이윤희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김 초청

21st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P. I. Tchaikovsky

Marche Slave Op. 31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Symphony No. 4 in f minor, Op. 36

2007. 10. 22.(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올린 데이비드 김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종신악장)



지휘 오충근
(고신대학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 주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임병원) www.bso21.com
 - 후원: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 특별후원: 소피아마르소여성회 BRAINET S-net 눈사랑안경
 - 문의: BSO 051) 620-4917/4918, 011-9508-8310(아간)
 - 예매처: 부산은행 티켓365 www.ticket365.co.kr 1588-2528
 - 입장권: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남포동 문우당서점(245-3843), 국도레코드(246-0705) / 서면 영광도서(816-9500), 교보문고(806-3501) / 금정 신나라레코드부산대점(518-0686), 음악자료창고(582-9143) / 대연동 면학도서(623-9404)

Contents

2007 · 10



- 08 부산문화회관 10월 공연 일정
- 12 마음을 여는 글 | 손빨래와 빨랫줄 · 최하수
- 14 반갑습니다 | 변함없는 영화사랑 펼치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
- 16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가을달 휘영청 밝으면 · 김상훈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East-West Musicfestiva · 이승주
- 22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우리 음악학자들은 하늘(天)을 어떻게 보았을
까? · 강성일
- 24 우리춤 산책 | 검무 · 흥기태
- 26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가을의 습관 · 김형술
- 28 연극속으로 | 형식과 염 · 유상흠
- 30 그곳에 가면 |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 32 우리는 문화가족 | 아름다운 60대 부울경남지부 클래식 음악방
- 34 지금 준비중 | 북구의 꿈 낙동청소년예술단
- 36 이 사람 | 부산대학교 한명희 교수, 극작가 김태수
- 38 공연 화제 | 영화의 바다로 출항 12회 부산국제영화제
- 40 공연 화제 | 2007 부산국제합창제
- 41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6 10월 프로그램 가이드
- 66 쉽게 듣는 클래식 | 오페라 · 곡근수
- 67 새로 나온 음반 | <글>문희정 · 비바체 클래식
- 68 새로 나온 책 | <글>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 6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70 부산문화회관 소식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대연 4동 848-4)

· 발행인 정우연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9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63-4 하이텔 B/D B1층

■ 표지설명 : 10월 25일 막이 오르는 부산시립극단 제30회 정기공연 '미스터 웅 vs 미스터 웅', 2006년 한국회극대상 수상에 빛나는 김태수 작가가 우리고전 '웅고집전'을 현대적인 퓨전뮤지컬로 창조해 냈다.

※ 예술예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10

월 공연일정

전시실

2007 부산서예비엔날레-대·중전시실

10월 1일(월)-10월 13일(토) (개막 10월 1일 오후 4시)

문의 부산서예비엔날레 사무국(863-8177)

2007 부산남구문화예술회 작품전-대전전시실

10월 15일(월)-10월 20일(토) (개막 10월 15일 오후 2시)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청문화체육과(607-4064)

원불교미술인협회정기전 및 국제교류전-중전시실

10월 15일(월)-10월 19일(금)

문의 김병욱(011-623-4201)

20인의 하나전-대전전시실

10월 24일(수)-10월 29일(월)

문의 황인순(011-860-0091)

고신대학교 회화과 제 5회 졸업작품전-중전시실

10월 24일(수)-10월 26일(금)

문의 장해욱(016-561-0138)

2007 부산, 제주 전각교류전-중전시실

10월 27일(토)-10월 31일(수) (개막 10월 27일 오후 5시)

문의 춘당서예학원(752-0445, 011-9558-0559)

부경서학회전-대전전시실

10월 30일(화)-11월 2일(금)

문의 서기식(011-9514-9324)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65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1 **mon** 이태리 음악연구회 창단 20주년 기념 제 26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천(731-7530, 010-7315-7352)
- 2 **tue** 동아 필 관현악단 창단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 · 7천원/박미정(010-9329-8455)
- 3 **wed** 문정수와 함께하는 영화음악 플러스콘서트 19:30
균일 2만원/부산콘서트비타리(501-3999, 019-501-3999)
- 4 **thu**
- 5 **fri**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이홍렬이 만나는 11시 토크콘서트' 11:0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6 **sat**
- 7 **sun** 6개 광역시 및 제주도 무용교류전 17:00
균일 1만원 · 7천원/한국무용협회 부산지부(632-5116)
- 8 **mon**
- 9 **tue** 2007 제 18회 대학무용제 19:30
초대/경성대학교(620-4964)
- 10 **wed** 2007 제 18회 대학무용제 19:30
초대/경성대학교(620-4964)
- 11 **thu**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젊은성악가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9)
- 12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3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3 **sat** 명사들과 함께 하는 가을콘서트 19:30
2만원 · 1만원/부산콘서트비타리(501-3999, 019-501-3999)
- 14 **sun**
- 15 **mon** 부산CBS 창립48주년 기념 '금년새와 함께하는 가을의 향연' 19:30 5만원 · 3만원 · 1만원/부산CBS(636-0050)
- 16 **tue**
- 17 **wed** 제 25회 부산무용콩쿠르 본선
KBS부산방송국(620-7326)
- 18 **thu** 부산시립합창단 제 123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민요가 있는 가을'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19 **fri** 국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가을공감-Fall in Love' 19:30
솔오메라단(011-9315-6878)
- 20 **sat** 2007 문화의 달 개막행사 '地-땅의 울림' 13:00
초대/2007 문화의 달 추진 위원회(888-3394)
- 21 **sun** 2007 문화의 달 기념행사 '人-사람의 몸짓' 한민족 교류 18:00
초대/2007 문화의 달 추진 위원회(888-3394)
- 22 **mon** 데이비드김 초청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1회 정기연주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임병원(620-4917, 011-9533-4917)
- 23 **tue** 러셀 셔먼 피아노독주회 19:30
6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7-1536)
- 24 **wed** 제 21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25 **thu** 제 21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26 **fri** 제 21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27 **sat** 제 22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7:00
초대/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 28 **sun**
- 29 **mon** 메조소프라노 차순례 독창회 '뮤지컬 콘서트' 19:30
초대/동서대학교 공연예술학부(320-1912, 011-559-5247)
- 30 **tue**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4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31 **wed** 2007 부산국제합창제 전야대음악회 '코리아원타지 인 부산' 19:30
5만원 · 3만원/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중극장

MEDIUM THEATER

- 1 **mon** 2007 대학 합창페스티벌-신라대학교 19:30
초대/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 2 **tue** 2007 대학 합창페스티벌-동아대학교 19:30
초대/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 3 **wed** 2007 대학 합창페스티벌-경성대학교 19:30
초대/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 4 **thu** 부산실내악 페스티벌 19:30
초대/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 5 **fri** 미야아트 댄스컴퍼니 '꽃신' 19:30
2만원 · 1만원/강미희(018-552-0728)
- 6 **sat** 2007 아시아 클라리넷 축제 16:00, 19:30
1만원 · 5천원/한국클라리넷협회(011-574-3687)
- 7 **sun** 권은영 제 6회 거문고 독주회 20:00
초대/예술기획 소리터(011-842-6942)
- 8 **mon** 독일가곡연구회 제 31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김현식(011-566-4172)
- 9 **tue** 부산작곡가 협회 제 34회 작곡발표회-실내악의 밤 19:30
균일 1만원/이옥영(018-505-5689)
- 10 **wed** 부산시 구 · 군 연합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초대/김성미(010-5877-6088)
- 11 **thu**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제 3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서숙지(018-563-6692)
- 12 **fri**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제 3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서숙지(018-563-6692)
- 13 **sat** 부산오페라연구소 2007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5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오페라연구소(747-1567, 010-3038-7191)
- 14 **sun** 장선희의 춤 '풍경' 19:00
2만원 · 1만원/장선희(010-9033-2959)
- 15 **mon**
- 16 **tue**
- 17 **wed**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따로 초청공연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프랑스문화원(465-0306)
- 18 **thu**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1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07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19 **fri** 이종록 가곡 발표회 19:30
초대/이종록(331-4092, 011-831-1792)
- 20 **sat**
- 21 **sun**
- 22 **mon**
- 23 **tue**
- 24 **wed**
- 25 **thu** 부산시립극단 제 30회 정기공연 '미스터 웡 vs 미스터 웡' 19:30
1만5천원 · 1만원 · 8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6 **fri** 부산시립극단 제 30회 정기공연 '미스터 웡 vs 미스터 웡' 19:30
1만5천원 · 1만원 · 8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7 **sat** 부산시립극단 제 30회 정기공연 '미스터 웡 vs 미스터 웡' 16:00
1만5천원 · 1만원 · 8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28 **sun**
- 29 **mon** 금찬이 피아노 리사이클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 코리아(442-1941)
- 30 **tue** 상해예술단 초청공연 19:30
초대/부산광역시의회(888-5262)
- 31 **wed** 2007 장정윤의 순수 현대무용공연 19:30
균일 1만원/장정윤(200-7819)

소극장

SMALL THEATER

- 1 **mon**
- 2 **tue** 문화의 달 기념 극단 에저또 특별공연 '물지마 육남매' 19:30
1만5천원 · 1만원/연극협회 부산지부(645-3759)
- 3 **wed** 문화의 달 기념 극단 에저또 특별공연 '물지마 육남매' 19:30
1만5천원 · 1만원/연극협회 부산지부(645-3759)
- 4 **thu** 문화의 달 기념 극단 에저또 특별공연 '물지마 육남매' 19:30
1만5천원 · 1만원/연극협회 부산지부(645-3759)
- 5 **fri** 문화의 달 기념 극단 에저또 특별공연 '물지마 육남매' 19:30
1만5천원 · 1만원/연극협회 부산지부(645-3759)
- 6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스 필 앙상블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7 **sun**
- 8 **mon**
- 9 **tue**
- 10 **wed**
- 11 **thu**
- 12 **fri**
- 13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가야금연주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4 **sun**
- 15 **mon**
- 16 **tue**
- 17 **wed**
- 18 **thu**
- 19 **fri**
- 20 **sat** 토요일상설무대-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1 **sun** 제2회 벨리댄스코리아 부산 정기발표회 16:00
김미조(010-9342-6572)
- 22 **mon**
- 23 **tue**
- 24 **wed**
- 25 **thu** 김희선 성악클래스 정기연주회 19:30
김희선(622-6047, 019-391-7556)
- 26 **fri** 조희규 해금독주회 19:30
초대/조용섭(011-580-4199)
- 27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8 **sun**
- 29 **mon**
- 30 **tue**
- 31 **wed**

부산시내 기타공연 10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시민회관(630-5200)

- 1 **mon** 월요일 영화 '디스터비아'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 **tue** 제 4회 창작관악곡 연주회 19:00 -대극장 전이동(011-835-0368)
대불대 실용음악과 정기연주회 19:30 -소극장 서울연구소(02-595-1362)
- 3 **wed**
- 4 **thu**
- 5 **fri**
- 6 **sat** 월요일 영화 '디워' 14:00, 16:30, 19: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11:00, 14:00, 16:00 -소극장
- 7 **sun** 스포츠한국 전국학생무용콩쿠르 9:00 -대극장 김동세(011-873-1472)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14:00, 16:00 -소극장 플라스기획(080-071-1212)
- 8 **mon** 월요일 영화 '디워'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교사극단 한새별 정기공연 '가판대' 19:00 -소극장
- 9 **tue** 교사극단 한새별 정기공연 '가판대' 19:0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이효동(019-443-7502)
- 10 **wed** 교사극단 한새별 정기공연 '가판대' 19:00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이효동(019-443-7502)
- 11 **thu**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마야'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교사극단 한새별 정기공연 '가판대' 19:00 -소극장
- 12 **fri**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마야'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교사극단 한새별 정기공연 '가판대' 19:00 -소극장
- 13 **sat** 가을에 듣는 정다운 우리가곡 19:00 -대극장 조홍래(011-565-7398)
제 7회 오키나미를 정기연주회 18:00 -소극장 김선희(010-5664-9389)
- 14 **sun** 전국 원음 성가합창제 13:00 -대극장 무료/원불교 부산교구(245-0717)
제 2회 부산팬플룻시랑 정기연주회 17:00 -소극장 방우중(017-558-8303)
- 15 **mon** 월요일 영화 '심슨가족, 더 무비'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6 **tue** 유: U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동구 여성 및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소극장 동구점(440-4064)
- 17 **wed**
- 18 **thu** 동아 8인음악회 19:30 -소극장
초대/강미래(018-617-1125)
- 19 **fri**
- 20 **sat**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14:00, 18:00 -대극장
4만원 · 3만원/KN(850-9299)
- 21 **sun**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14:00, 18:00 -대극장
4만원 · 3만원/KN(850-9299)
- 22 **mon** 월요일 영화 '화려한 휴가'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3 **tue** 월요일 영화 '화려한 휴가'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4 **wed** 월요일 영화 '화려한 휴가'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5 **thu** CBMC 열린음악회 19:00 -대극장 초대/김주범(016-549-1156)
색동 가을소리 '마법의 동물원' 10:20, 11:40 -소극장
- 26 **fri**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9:30 -대극장 영연임설(02-720-3933)
색동 가을소리 '마법의 동물원' 10:20, 11:40 -소극장
- 27 **sat** 색동 가을소리 '마법의 동물원' 11: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부산색동어린이회(809-7658)
- 28 **sun** 테너 박인수와 음악여행 19:30 -대극장 초대/차재준(011-837-2297)
색동 가을소리 '마법의 동물원' 11:00, 14:00, 16:00 -소극장
- 29 **mon** 월요일 영화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30 **tue** 연극 '유랑극단' 16:30, 19:30 -소극장
균일 1만원/경성대학교(607-5180)
- 31 **wed**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제 25주년 기념연주회 19:30 -대극장 부산대(510-1739)
연극 '유랑극단' 16:30, 19:30 -소극장 경성대학교(607-5180)

금정문화회관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92)

- 1 **mon** 오페스 피스트 축제 시작 19:30 -대공연장 오페스 피스트(010-8893-7829)
부산한국춤연구회 정기공연 '금삼' 19:30 -소공연장 임나영(016-879-6090)
- 2 **tue** 테너 김성진 독창회 '시월애' 19:30 -대공연장 프로인트(521-5729)
임종환, 강희숙 리코더 듀오콘서트 19:30 -소공연장 강희숙(016-756-1962)
- 3 **wed**
- 4 **thu** 임현미 현대춤 'Beyond the Cliff' 20:00 -대공연장
1만5천원 · 1만원/원형미(016-756-1962)
- 5 **fri** 예원희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무료/김인재(010-3626-0036)
- 6 **sat** 현영희 인생 60년, 벗들과 함께 16:00 -대공연장 예은예술기획(632-6904)
가을 대담은 소리연주회 18:00 -소공연장 초대/박진홍(017-540-0365)
- 7 **sun**
- 8 **mon** 박필은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9 **tue**
- 10 **wed** 금정수요음악회 '바리튼 김길수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11 **thu** 제 12회 금정예술제-금정음악제 19:00 -대공연장
무료/금정구청(519-4061)
- 12 **fri** 제 12회 금정예술제-금정국악제 19:00 -대공연장
무료/금정구청(519-4061)
- 13 **sat** 그랜드오페라단 영어오페라 '굴뚝청소부 샘' 19:30 -대공연장
무료/금정구청(519-4061)
- 14 **sun** 그랜드오페라단 영어오페라 '굴뚝청소부 샘' 19:30 -대공연장
제 12회 금정예술제-금정무용제 17:00 -소공연장 무료/금정구청(519-4061)
- 15 **mon** 유니스 코르넬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3만원 ·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 16 **tue** 바리톤 고정현 귀국 독창회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SOLISTI(010-3038-7191)
- 17 **wed** 금정수요음악회 '정우영, 윤태준 듀오리시탈'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18 **thu** 김지연 귀국 비올라독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19 **fri**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19:30 -대공연장
2만5천원 · 2만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0 **sat**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19:30 -대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안단테 제 4회 연합콘서트 17:00 -소공연장 강병일(011-889-2837)
- 21 **sun**
- 22 **mon** 2007 부산생활음악축제 19:30 -소공연장
균일 1만원/조익래(010-9878-7942)
- 23 **tue** 톤인프리 창단 10주년 음악회 19:30 -대공연장 손영진(011-849-8995)
2007 부산생활음악축제 19:30 -소공연장 조익래(010-9878-7942)
- 24 **wed** 카말라 이스트모더니티 내한연주회 19:30 -대공연장 클래식아트매니저(621-6646)
금정수요음악회 '아리야데 오키나 제각발보'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25 **thu**
- 26 **fri**
- 27 **sat** 뮤지컬 '넌센스 크래커' 15:00, 19:00 -대공연장 아우라기획(625-0866)
미당극 풍자와 팔각염마 11:00, 14:00, 16:00 -소공연장 플라스기획(080-071-1212)
- 28 **sun** 뮤지컬 '넌센스 크래커' 15:00, 19:00 -대공연장 아우라기획(625-0866)
미당극 풍자와 팔각염마 14:00, 16:00 -소공연장 플라스기획(080-071-1212)
- 29 **mon** 부산산포니에타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대공연장 김영희(011-9519-0448)
부산성악아카데미 러시아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소공연장 인생철(010-2400-5271)
- 30 **tue**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초창 속음아르페 'Two Piano 콘체 르토의 밤' 19: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수경관(011-841-4636)
- 31 **wed** 금정수요음악회 '신음희 작곡발표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부산시내 기타공연 10월 달력

울속도문화회관

|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331~2)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5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속도문화회관 초청 음악회 19:30 -대공연장
초대/울속도문화회관(220-5321~2)
- 6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17:0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21~2)
- 7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17:0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울속도문화회관(220-5321~2)
- 8 _____
- 9 _____
- 10 _____
- 11 _____
- 12 _____
- 13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초대/장은정 (017-842~6688)
- 14 _____
- 15 _____
- 16 _____
- 17 _____
- 18 _____
- 19 레이디스 필 앙상블 울속도문화회관 초청 음악회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울속도문화회관(220-5321~2)
- 20 제 15회 사하CE 성가합창제 19:00 -대공연장
사하지역기독교청년연합회(018-519-7916)
- 21 _____
- 22 _____
- 23 _____
- 24 _____
- 25 _____
- 26 뉴프라이믹스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 · 5천원/황성준(011-556-7308)
- 27 가족뮤지컬 '비보이 동산의 백설공주' 14:00, 16:0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극단 한울(010-9613-0426)
- 28 가족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11:00, 14:00, 16:0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극단 한울(010-9613-0426)
- 29 _____
- 30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0:30, 11:30, 12:50 -대공연장
극단 까치(625-2117)
- 31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0:30, 11:30, 13:00 -대공연장
극단 까치(625-2117)

해운대문화회관

|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5 _____
- 6 _____
- 7 _____
- 8 _____
- 9 _____
- 10 부산시립무용단 '男 궁주 vs 팔쥐'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 · 5천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2)
- 11 _____
- 12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09:50, 11:10, 13:3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동방뮤지컬컴퍼니(02-707-1132)
- 13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11:00, 14:00, 16:3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동방뮤지컬컴퍼니(02-707-1132)
- 14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11:00, 14:00, 16:30 -대공연장
2만원 · 1만5천원/동방뮤지컬컴퍼니(02-707-1132)
- 15 _____
- 16 앙상블 클라시아와 함께하는 11시 브런치콘서트 11:00
-대공연장 균일 2만원/앙상블 클라시아(506-6305)
- 17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유럽음악을 넘어서'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해운대문화회관(749-7652)
- 18 _____
- 19 SK 텔레콤 우량고객 초청 플루티라 러브콘서트 19:30 -대공연장
초대/러브콘서트팀(02-575-2982)
- 20 _____
- 21 _____
- 22 _____
- 23 해운대 소리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편수영(011-830-0133)
- 24 _____
- 25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 내한연주회 19:30 -대공연장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클래식아트매니지먼트(010-7508-5050)
- 26 윤혜정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윤혜정(011-832-9527)
- 27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공연 17:00 -대공연장
무료/장문선(011-489-0794)
- 28 김태경 클라리넷 독주회 18: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김태경(016-588-7920)
- 29 _____
- 30 해운대리코더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무료/장숙해(011-862-6675)
- 31 _____

손빨래와 빨랫줄

최화수 · 국제신문 논설고문

한 잡지사 여기자가 휴직계를 내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다. 국도를 종단하는 3번 국도를 따라 곤지암에서 남해까지, 다시 고흥에서 배를 타고 마라도까지 간다. 손수 자동차를 몰며 10일은 텐트에서 야영을 하고, 초반 아흐레는 남편 없이 여자 셋이서만 다녔다. 겨우 14일 동안의 여행, 이 짧은 기간에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 한 권을 펴냈다. 김선미의 <아이들은 길 위에서 자란다>가 그것이다.


집을 떠나 길 위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는 대목이 있다. 지은이가 경남 거창군 북상면의 '해네 집'이라는 한 귀농 선배의 집을 찾아 손빨래를 하게 된다. '나는 짐을 정리한 후 빨랫감을 가득 안고 감나무 아래 있는 수돗가로 갔다. 세탁기가 있었지만 발아래 들판이 내려다보이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수돗가 풍경이 너무 좋아 갑자기 손빨래가 하고 싶어졌다.'

지은이는 평소 손빨래만큼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손빨래는 힘도 들지만, 그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전기세탁기에 맡겨두면 얼마나 수월한가. 그런데 여든이 넘는 시어머니는 가끔 집에 오실 때마다 늘 수돗가에 쪼그려 앉은 채 묵은 때가 찌들어 있던 걸레까지도 눈부시게 빨이놓곤 하겠다.

그래서 시골마을에서 손빨래를 해보니 어떠했을까? '나는 여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빨래하는데 폭 빠졌다. 나중에는 아예 대야에 물을 받아서 이불 빨래하듯 맨발로 침범침범 빨랫감 속에 빠져 놀았다. 수챗구멍으로 물을 쏟아버릴 때는 여행을 떠나기까지 나를 옥죄고 있던 온갖 근심과 걱정까지 한꺼번에 씻아 하고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젊은 엄마가 직장에 휴직계를 내면서까지 어린 딸들을 위해 함께 떠난 여행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값진 일이다. 더구나 손수 손빨래를 하는 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신명을 느끼게 되고, 수챗구멍으로 물을 쏟아버릴 때는 온갖 근심과 걱정까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삶의 지혜나 즐거움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를 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진 생활의 '전통' 속에서 의외로 가까이 자리하는 것이다.

문명의 기기(利器)들로 하여 우리는 쉽고 편하게 살고들 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 세탁기를 두고 무슨 손빨래인가 하고 비능률의 '쓸데없는 도로(徒勞)'라며 비웃을 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부채보다 에어컨, 자전거보다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진 이라면 손빨래와 빨랫줄 따위는 가난하게 살던



시절의 낡아빠진 폐품으로 치부할는지 모르겠다. 하물며 숯불 다리미나 다듬이방망이질은 물어서 무엇 하랴.

손빨래는 신명나는 운동이 되고 심신을 카타르시스 해준다. 손빨래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탈수기나 전기 건조기를 대신하는 빨랫줄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웅변해준다. 요즘 미국 각지의 주택 뒷마당에 빨랫줄이 돌아오고 있다. 친(親) 환경 바람을 타고 ‘빨래 말릴 권리(Right to Dry)’라는 기치 아래 미국 전역에서 빨랫줄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빨랫줄 보급의 대표주자는 미국 북동부 버몬트 주에 사는 주부 미셸 베이커 씨이다. 평소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소비 문제를 걱정하던 그녀는 건조기 대신 빨랫줄에 세탁물을 널어 말리기로 마음먹고 흰색 밧줄을 삼목 기둥에 묶어 빨래를 널었다. 이를 지켜본 이웃과 친구들이 ‘빨랫줄’ 사용에 동참했다. 이렇게 하여 지난 4월 ‘버몬트 빨랫줄 주식회사’가 탄생했고, 빨랫줄 사용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빨래 건조기는 8만 8000대로 이를 이용하면 가구당 연 1,079 KW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1,00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빨랫줄을 사용하면 에너지 절감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운동 및 야외활동 시간까지 증대된다. 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태양전지판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서가 아니라 ‘작은 마음의 변화’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최근 일본 등 몇몇 나라에서는 ‘슬로 디자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속도 경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행복의 원천인 마음의 여유는 실종돼버린 아쉬움에서 이 운동이 출발한다. 이 운동은 요즘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슬로 시티(Slow City)’와 맥을 같이 한다.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빨리빨리’는 인간 파괴의 바이러스라는 것이 ‘슬로 시티’의 창시자 파올로 사투르니니의 주장이다. 이 운동의 핵심은 전통과 자연을 존중하는 데 있다. 이를테면 대형 마트에서 식품을 잔뜩 사다가 냉장고에 쌓아놓는 대신 필요할 때 동네 가게에서 조금씩 사다 먹는 것이다. 우리의 손빨래와 빨랫줄도 바로 그러하다.

변함없는 영화사랑 펼치고 있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세계 5대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10월의 부산은 영화의 바다를 향해하는 전 세계 영화인들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영화인과 시민들의 열정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의 시장재임 시에 시작되었다. 정치인 출신 관료답지 않게 영화와 영화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문정수 시장은 요즘도 영화 사랑이 대단하다.

‘부산을 영상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문정수 전 시장은 시장 당선 후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던 중 산과 바다가 있는

천혜의 환경을 활용하면서 문화적 인프라의 열세를 극복할 콘텐츠를 구상하면서 영화제 개최를 생각하게 되었다. 올해 12회 영화제를 앞두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

“21세기는 문화적인 기반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칸느라 베니스처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도시이기 때문에 영화제가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높이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문정수 전 시장이 공식적으로 ‘부산을 영화 도시로

만들자'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꿈을 실현시키기에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다.

“서울도 못한 영화제인데, 당장 부산경제가 걱정인데, 영화제 개최는 무리다”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당시 문정수 전 시장은 곳곳하게 영화제 개최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다. 영화제 개최에 대한 그의 바람과 노력이 헛되지 않아 1996년 1월 박광수 감독, 이용관, 김지석 씨 등과 첫 만남을 가지고, 2월 13일 문정수 부산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김동호 씨를 집행위원장으로 추대하며 부산국제영화제 법인이 출범하게 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하드웨어는 부산시가 맡고, 소프트웨어는 영화인이 맡는다' 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영화인들과 의견을 맞추어 오면서 지금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문정수 전 시장은 당시 부산국제영화제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어떤 해는 영화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여, 야 대통령 입후보들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를 순수한 영화축제로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의 참여를 배제해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 추억이다.

2003년 부산국제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이장호, 박중훈 등 영화인들과 함께 2003년 '문정수와 함께 하는 영화음악' 무대를 열었다. 올해에도 10월 3일 그와 인연을 맺은 영화인들과 함께하는 영화음악 콘서트를 연다. 처음 영화음악회를 개최할 때는 격년으로 음악회를 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두번째 음악회 개최까지 4년이 흘렀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공연 기획에서부터 캐스팅 등 음악회 전반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문정수 전 시장은 2003년 음악회에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모정' 주제곡과 마이웨이, 고엽 등을 무대에서 직접 불러 박수를 받았다. 올해는 영화 '고스트' '대부' '피아노 치는 대통령' 주제곡 등 레퍼토리를 더 다양하게 준비했다. 올해 무대 수익금은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데에도 쓸 예정이다.

“영화제만으로 부산의 문화가 활성화 될 수는 없지요. 영화와 함께 영화음악회도 열리고 영화 후반작업도 활성화되어야 부산이 진정한 영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신라대학교로 향한다. 신라대학교 초빙교수로 후학들에게 그동안의 시정 경험을 중심으로 행정학을 강의하는데 후학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보람 또한 크다.

“음악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이예요. 삭막한 정치만 하다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어 너무 즐겁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꼭 비싸고 유명한 공연이 아니더라도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대는 많을 것입니다. 기타나 색소폰을 배우고 싶어 악기까지 준비해줬는데 이제 꼭 배워 볼 생각입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부산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으로 이끈 부산시민들의 열정이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굳게 믿는다.

가을달 휘영청 밝으면

민립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계절을 맞고 보낼 때 마다 우리는 그 계절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을을 맞고 보낼 때면 유별나게 그 의미가 절실해 지는 것이다.

지난 여름은 여느 해와는 달리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지겹도록 계속 되었다. 대상(隊商)도 아닌 우리 모두가 마치 열사(熱沙)의 사막을 건너온 것 같은 장장하일(長長夏日)의 고통이었다.

여름더위가 지독하다 보니 가을을 기다리는 심정은 더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가을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노래로는 윤복진 작사 박태준 작곡의 '아! 가을인가'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아! 가을인가/아! 가을인가/아아~ 가을인가 봐/물통에 떨어진 버들 잎 보고/물 길는 아가씨 고개 속 이지//아 가을인가, 아 가을인가/아아~가을인가 봐/둥근달이 고요히 창에 비치면/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나 봐?〉

이 노래는 애상적인 분위기가 전편에 감돌기 때문 한때 연주회용 독창곡으로 많이 불려졌다. 특히 '물통에 떨어진 버들 잎 보고/물 길는 아가씨 고개 속이지' 와 '둥근 달이 고요히 창에 비치면/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나봐'로 끝나는 마지막 연에서는 가을이 조낙(凋落)의 계절이며 별리(別離)의 계절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 밖에 가을을 소재로 한 노래로는 김현승 작사, 김승일 작곡의 '가을의 기도'가 있고, 김억 작사, 김성태 작곡의 '가을 국화' 그리고 또 김현승 작사 정영택 작곡의 '가을의 기도'도 있다.

〈가을에는/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가을에는/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사람을 택하게 하소서/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시간을 가지게 하소서//가을에는/호울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 시인은 기독교적 구원의식을 바탕으로 허무와 상실을 극복하는 시를 많이 썼다.

명상의 시인, 기도의 시인으로 알려졌던 시인은 그가 교수로 재직하던 숭실대학에서 채플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앓은 채 눈을 감고 운명(殞命)하셨다.

위의 짧은 시속에서도 그의 높은 정신세계와 인간적 진실성, 인격적 고매성, 나아가 겸양의 도(道)까지를 확인하고도 남는다.

김승일의 곡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작곡되어 있다.



가을의 의미는 앞에서 말한 조نا과 이별 이외에도 결실(結實)과 완숙(完熟)의 계절이고 수확(收穫)과 동장(冬藏)의 계절이며 고향을 그리워하고(思鄉), 부모를 그리워하고(思親), 사람을 그리워하는(思人) 계절이며 자기의 뿌리, 자기의 근원을 되돌아보는 귀근(歸根)과 귀원(歸源)의 계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긴 삼동(三冬)의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봄이면 다시 피어날 꽃눈(花芽)과 잎눈(葉芽)을 불뚱처럼 안고 있는 회임(懷孕)의 계절이기도 한 것이다.

가곡은 물론 동요 가운데도 가을을 소재로 한 노래는 많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술술 불어오니/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같아 입고서/남쪽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봄이 오면 다시오라 부탁하누나〉라는 백남석 작사, 현제명 작곡의 동요도 있고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 갑니다/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엄마 엄마 찾으며 날아갑니다.//오동잎이 우수수 지는 달밤에/아들 찾는 기러기 울고 갑니다/엄마 엄마 울고 간 잠든 하늘로/기력기력 부르며 찾아 갑니다〉는 박태준 작사, 이일래 작곡의 동요도 있다. 모두가 우리들 마음의 깊은 안뜰(內庭)에 따뜻한 사랑의 등불을 밝히는 훌륭한 동요들이 아닐 수 없다.

가을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슬프고 쓸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시에서도 가을의 대표적 영상은 이별과 슬픔이 지배적이다.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싫단 말 난 다시 앓을래/밤새워 우는 저 풀벌레들 소리/더구나 우수수 낙엽이 지면/어이 견딜가 보냐//늘어난 나이의 부피로/잠은 밀려갔는가/가만히 눈 감으니 북망(北望)한 벼들도 많다/돌러친 병풍사이로 멀어져간 너와 나〉

이호우(李豪雨)시인의 ‘청추(聽秋)’라는 시조(時調)이다. 계절이 던져주는 소슬(蕭瑟)하고 황량(荒涼)함을 시인의 가슴 속에 투영(投影)시켰다가 고도로 정련(精鍊)하고 여과(濾過)해서 빛은 명편(名篇)이라고 하겠다.

오동잎이 그 넓은 손바닥으로 한층 두층 천층(天層)을 밀어 올리면, 하늘은 따라서 눈이 부시도록 높고 푸르러 지리라.

멀지 않아 휘영청 가을 달이라도 밝으면 우리는 ‘가을 노래’를 즐겨 부르며 또 한 계절을 아쉽게 손짓하며 이별해야 하리라.

오스트리아 St.Poelten East-West Musicfestival

이승주 · 비엔나 통신원



St.Poelten의 Rathaus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는 음악소리가 언제나 함께한다. 그러기에 이곳은 음악도들에게 가장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이기도 하며, 한번쯤 이곳의 분위기에 취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의 기대에 맞게 오스트리아는 음악적 역사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열리는 수많은 연주회중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한적한 시내의 노천카페에서 오스트리아의 전통커피인 멜랑지(우리가 흔히 비엔나 커피라고 부러우는 것, 모카향의 커피와 우유를 1:1로 섞은 것이다.)를 시켜놓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바로 그곳이 연주회장이다. 거리의 연주자들이 우리를 연주회장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다. 이곳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우리의 연주자들 또한 바쁘게 움직이는 이번 여름이었다.



East-West Musicfestival포스터

그 중 St.Poelten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어 달려가 보았다. St.Poelten에서는 'East-West Musicfestival'이 개최되고 있었다.

St.Poelten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기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려가면 나오는 작은 도시이다. 작지만 이곳 St.Poelten은 Nider Oesterrich주의 주도(도청소재지)로서 경제와 문화의 선두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도착하면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말 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중세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으며 작은 골목들 사이로 아담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이곳의 시민들의 표정 또한 너무나도 온화하다. 시간에 맞

춰서 울려퍼지는 성당의 종소리는 중세의 어느 시점으로 나를 안내하는 느낌이다. 이곳에 도착하고서야 왜 이곳에서 20주년 East-West Musicfestival을 개최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이곳은 음악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게 모든 환경적 요소가 갖추어진 곳인 것 같더라는 느낌이다. 음악이라고는 들을 줄 밖에 모르는 필자조차도 악기가 주어지면 당장이라도 연주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다. 지난 7월말 이곳에는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그들의

연주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곳 East-West Musicfestival에 세계가 좁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여미혜가 연주자로서 후학양성자로서 심사위원으로서 3인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초청되었다.

하나를 하기에다 벅찬 일정이지만 첼리스트 여미혜는 이 모든 것이 즐겁고 새롭고 또한 감사하다고 한다. 모든것을 배움의 자세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그녀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Vierho fner seen호수

‘East-West Musicfestival’은 1987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뮤직페스티벌이다. 이 뮤직페스티벌은 전세계 최고 아티스트들이 연주회 및 마스터 클래스를 동시에 개최하여 다양한 음악적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곳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최고의 아티스트들에게 마스터클래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그 자리가 또한 그들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콩쿠르로 이어진다. 또한 이곳에 참가하면 최고의 연주자들의 연주를 직접 가까이서 매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 페스티벌을 창단한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인 Gernot Winischhofer이다. 바이올리니스트 Gernot Winischhofer는 음악교육의 중요도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이와 같은 기획의 페스티벌을 창단하게 됐다고 한다. 학교에서 단기로 가르쳐지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진정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어야 온전한 음악가가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지도를 받는 연주자의 연주를 감상하면서 좀 더 그들의 음악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느낌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이와 같은 페스티벌을 기획했다고 한다. 실제의 그도 비엔나콘서바토리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교수로서 솔로연주자로서 몸이 열두개가 되어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의 교육에 관한 신념은 강하게 그의 중심에 서있다. 그러한 그의 열정으로 인해 East-West Musicfestival은 어느새 20주년을 맞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참가학생들에게 무대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연주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연주는 참가학생들이 즉석에서 팀을 짜고 연습해서 연주를 하는 형식과 교수님들의 연주에



교수님과 함께한 현세은, 문나래양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학생 중 문나래(연대1, 첼로)양은 이들의 연주를 위해 손수 악보를 구해주시고 따로 레슨을 해주시는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담당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또한 문나래양은 이번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각국에서 참가한 음악하는 친구들과의 교류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서 좋았다고 한다. 다음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꾸준한 영어실력향상을 위한 공부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올해에도 이 기간에 제3회 국제베토벤콩쿠르가 함께 개최되었다. 첼리스트 여미혜는 이 페스티벌 기간 동안 마스터클래스와 연주, 그리고 심사를 맡았다.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연주기간 동안에는 2번의 연주를 각국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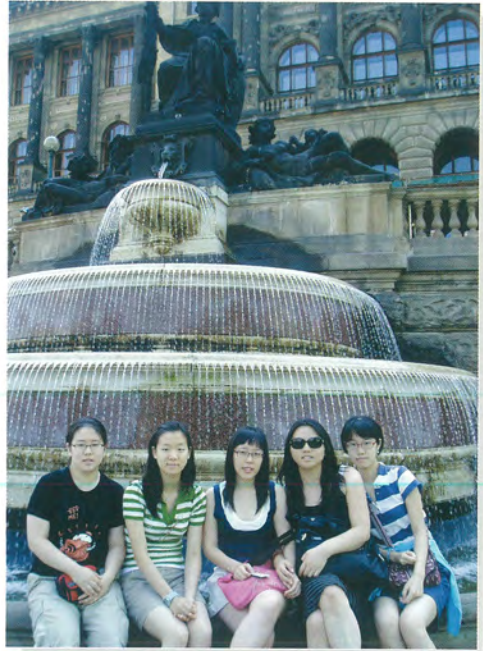


Gernot Winischhofer, Emauela Michael Kugel, Tatjana Leontieva, 여미혜, Milan Karanovic (순서대로)

7월 29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Alexznder Vinnitzky 와 피아니스트 Antonio di Cristofano 함께 하는 Trio Concert가 있었다. 이 공연에서 이들은 D. Schostakowitsch - Trio Concerto Nr.2 , E-moll, op.67, J.Brahms - Trio Cocerto A-Dur을 연주해 주었으며, 8월 6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Gernot Winischhofer, Emauela Grajdian 비올리니스트 Michael Kugel, Tatjana Leontieva 그리고 첼리스트 Milan Karanovic와 함께하는 연주회가 있었다. 이들이 이날 연주한 곡은 Pleyel - Streichquartett Nr.1과 F.Schubert - Streichquartett for 2 Violins ,Viola and 2 Cello op.163이었다. 정상급 연주

자들이 만났으니 이들의 연주는 당연히 성공적이었음은 달리 설명안해도 될 듯 하다. 첼리스트 여미혜는 이들을 통해 더 넓어진 음악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고 말한다. 항상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지만 그러기에 그녀가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첼리스트 여미혜는 후학들에게 국제무대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고 한다. 세계는 넓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많은 음악인들과의 교류하고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것이 그들의 음악을 완성해 가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페스티벌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크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와 함께 우리 연주자들이 그리고 음악학도들이 세계와 조금 더 가까워 지길 바래본다



한국 참가학생 왼쪽부터 오소연, 문나래, 박가은, 백지선, 한세은



우리 음악학자들은 하늘(天)을 어떻게 보았을까?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 강사

10월은 상월(上月)이라 하여 하늘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계절이요, 우리에게서 무더운 여름을 보냈기에 더욱 소중한 달이다. 또한 가을의 풍요로움과 하늘이 열렸다는 개천절이 있으니 드높은 하늘과 더불어 우리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 고구려의 음악인 백결선생은 <삼국사기>에 '사생은 명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死生有命 富貴在天)'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음악인의 심성에는 본래 하늘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음악학자들은 하늘을 어떻게 보았을까? 조선 성종대의 음악학자 성현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물에 떠도는 것(浮)'과 같고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잠시 쉬는 것(休)'이라는 뜻에서 부휴자(浮休子)라는 호를 쓰고 <부휴자담론>이란 문집으로 남겼는데, 여기에서 그는 하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늘을 이른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창공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주재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주재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 하는가. 선악(善惡)에 대해 화복(禍福)으로 감응(感應)하는 이치를 말한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성현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주고, 악한 행실이 있으면 반드시 재앙을 내립니까?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여 하늘이 사람에게 일일이 화복을 베푼다는 말입니까?

성현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늘은 다만 이치를 사람(임금)에게 부여하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착한 행실이 있다 하여 하늘이 반드시 재물을 내려 삼을 주고, 악한 행실이 있다 하여 하늘이 반드시 벼락을 쳐서 벌을 준다면, 사람들은 도리어 하늘에 아부하려 할 것이다. 오직 화복의 이치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가고 두려워하여 감히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시 성현에게 물었다.

세상에는 사람에게 해만 끼칠 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저들을 모두 번성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현이 대답하였다.

선행(善行)이 있으면 반드시 악행(惡行)이 있고, 치세(治世)가 있으면 반드시 난세(亂世)가 있다. 이치가 본디 그런 것이다. 악행이 없으면 선행이 있다 하여 귀할 것이 없으며, 난세가 없으면 치세가 있다 하여 귀할 것이 없다. 만물 중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람이 없애며, 사람 중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

는 지는 지배자가 없앤다. 만약 모두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흥포한 짓을 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시 성현에게 물었다.

가난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부유합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저들을 구별하여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현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기르는 만물 중에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며 무성한 것도 있고 시들한 것도 있다. 무릇 천지 사이에形形色색으로 흩어져 있는 만물은 모두가 서로 다른 법이다. 하늘은 저들에게 형태와 색깔은 줄 수 있으나 저들을 다 잘 살게 할 수는 없다. 하늘이 저들을 다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땅에는 비옥함과 척박함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성장도 또한 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도 모두 그 품성(稟性)의 타고난 자질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몸이 말랐거나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늘을 원망할 필요가 없으며, 죽음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하늘을 나무랄 필요가 없다. 뜻밖에 만나는 재난이나 어리석은 사람의 몽매(蒙昧: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움)함은 하늘도 또한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는 자신의 <허백당문집>에서 십계명 중 첫째로 하늘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늘은 오직 밝으시다, 선한 일을 행하면 상서로움이 내려 복과 영화로움이 가득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화를 내려 죽음을 면키 어려우니 백에 군자라도 공경하고 공경할 지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늘을 공경한 성현은 <부휴지담론>에서 음악의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음악은 하늘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학문에 잘 활용하면 그 인격이 올바르고 온화하며 너그럽고 엄숙하게 닦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잘 활용하면 그 지도자를 공손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 활용하면 그 마음에 답답함이 없이 모두 화평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귀신에게 잘 활용하면 귀신이 언제나 찾아와 마음껏 흥향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만물에 잘 활용하여 어긋남이 없게 하면, 해와 달이 이지러지는 변괴를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산과 강이 무너지거나 터지는 재앙을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나무와 풀이 일찍 시드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새나 짐승이 놀라서 달아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다.

음악을 잘 활용할 때 이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재물이 많다 해도 하늘을 속이면 그 죄는 끝까지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잊으니 그것이 탈이다.



검 무

흥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검무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상으로도 가장 오래된 검무로는 '황창무'라 일컫는 신라시대의 검무가 있다.

이 신라의 '황창무'로부터 비롯된 검무는 고려 말까지 지속되면서 주로 궁중의 연향에서 공연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이후 전승이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전쟁터에서, 어전에서 혹은 저잣거리에서의 검무 등 다양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의 시에 나오는 '칼춤 추는 미인에게'라는 글을 보면 이것이 검무에 대해 예찬한 글임을 알 수 있다.

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검의 기운을 그림처럼 환상적인 모습으로 정약용 선생께서 글을 그려내어 표현 하였다.

칼춤을 추는 미인에게

계루고 한 소리에 풍악이 시작되어 온 좌중이 가을 물결처럼 고요해라. 축석루 아가씨 꽃 같은 그 얼굴에 군복으로 분장하니 남자몹시 되었구나. 보랏빛 패자에 푸른 전모 눌러쓰고 좌석에 절한 뒤에 발꿈치를 돌렸네. 부드러운 걸음 박자 맞추어 걸으니 쓸쓸한 듯 걸어가다 기쁜 듯이 돌아서네. 날아갈 듯 선녀처럼 살짝 내려앉으니 발길은 고운 빛에 가을 연꽃 같아라. 한참 몸을 기울어 물구나무서면서 열 손가락 뒤쳐보니 뜯구름 같아라. 한칼은 땅에 놓고 또 한칼로 춤추니 푸른 뱀이 칭칭 서려 가슴을 휘감는 듯 홀연히 두 칼 잡고 사뿐히 일어서니 사람은 보지 않고 안개구름만 자욱해라. 이리저리 휘둘러도 칼끝은 닿지 않고 치고 찌르고 뛰고 굴러 눈앞이 무서워라. 회오리바람 소니기가 겨울 산에 가득한 듯 붉은 번개 푸른 서리가 빈 골짜기 다 투는 듯 놀란 기러기처럼 안 올 듯 날아가다가 성난 매처럼 감돌며 노려 보네.

쟁그랑 칼 던지고 사뿐히 돌아서니 예처럼 가는 허리 겨우 한줌 남짓해라. 서리별 여악(女樂)은 우리나라 으뜸이어서 황창무 옛 곡조가 아직껏 전한다네.

칼춤 배워 성공하기 백에 하나 어려워서 살진 몸매 늘어진 불에 노둔한자 많았는데 너 이제 젊은 나이에 묘한 재주 지녔으니 옛날 이르던 여협(女俠)을 오늘에 보는 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 너 때문에 애태웠나. 때때로 미친 바람, 장막 안에 불어드네...



진주검무

검무는 검기무 또는 황창랑무라고도 한다. 검무의 유래에 대하여는 동경 잡기의 풍속조에 황창랑이라는 신라의 나이 어린 소년이 나라를 위해 백제 왕국에 들어가 왕 앞에서 칼춤을 추다 백제왕을 죽이고 자신도 잡혀서 죽은 충절을 추모하여, 신라 사람들이 창랑의 용모와 비슷한 가면을 만들어 쓰고 그가 추던 춤을 모방한 데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한다.

전립과 전복 전대의 복식을 4명의 무원들이 긴 칼을 들고 대무하여 추는 춤으로 원래 민간에서 가면무를 행해지던 것을 조선 순조 때 궁중정재로 채택 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된 춤이다. 원래 검문는 장수들이 차는 칼과 같은 긴 칼을 가지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기존의 검무가 각 지방 교방청으로 들어가면서 기녀들의 교방춤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후부터 기생들이 춤을 추며 사용하기 쉽게 같이 짧아지고 손잡이가 돌아가는 칼로 바뀌었다. 춤을 추기 위해 개발한 춤 도구였다고 본다. 황진이가 독무로 긴 칼을 들고 검무를 춘 것이 고중에 맞는 것이고 손잡이가 돌아가는 검무는 역사가 100여년 정도 밖에 안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검무로는 진주, 통영, 평양, 해수, 함흥, 서울, 밀양, 호남 검무들이 있는데 모두 교방춤으로 전승 되었던 검무들이다. 이중 진주검무, 호남검무, 통영검무, 평양검무, 서울 검무가 보유자와 전승자들의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승되는 대표적 검무인데, 다만 통영검무는 현재 통영 북춤과 합설되어 승전무의 형태로 전승 되고 있다.

관아에서 연행되던 것 가운데 진주와 통영지방의 검무가 전승되고 있고 검무는 일명 검기무 또는 칼춤이라고도 하는데, 진주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검무가 1967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2호로 지정 되었다. 진주검무는 연출 형식 춤가락 칼쓰는 법 등 모든 기법이 과거 궁중에서 연희 되던 검무의 원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 되고 있는 무용이다.

진주검무는 8명의 무원이 남색 무사복, 전복, 흥색 전대, 검은 전립에 색동 한삼을 끼고 느린 엽불 도도리 장단에 일렬로 입장하고 무대 중앙에 종대로 마주한 다음 느리고 장중하게 한삼을 뿌리고 춤이 시작된다. 그러다가 한삼을 빼어 맨손을 뿌리며 입춤 사위로 추다가 이윽고 옆드려 숙인 사위로 어른다. 이윽고 앉은 사위로 춤을 추다가 땅에 놓았던 칼을 양손에 갈라 쥐고 씩씩한 빠른 타령장단에 칼을 좌우 사위로 휘두르며 방석돌이로 돌아가며 장쾌하게 칼춤을 춘다.

이렇듯 진주 검무는 다른 고장의 검무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 화려한 춤사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을의 습관

- 김윤민 〈가을. 45.5x37.9cm.〉 -

김형술 · 시인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의 기세가 드디어 꺾였다. 이제 가을이 올 차례다. 하지만 정작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새털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나 곡식이 익어가는 들판 등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보게 되는 텔레비전의 화면들이다. 가을이 오겠구나 생각만 할 뿐 마음먹고 하늘 한 번 올려다볼만한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웬지 마음은 바빠진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뭐지? 생각해보면 아주 희미하게 가을의 습관들이 내 몸 속에 배어있음을 알겠다. 그렇구나. 추석차례를 지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을걷이에 나서야 한다. 가을추수의 계획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웃들과 긴밀하게 품앗이의 일정을 의논한 후에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다랭이 논에서부터 큰 들판의 논까지 벼베기를 할 순서를 집집마다 정한 후 모자라는 일손을 구하러 이웃마을로 분주히 다녀오고 나면 오일장을 기다려 낫과 호미, 손수레같은 농기구의 등속을 대장간에 맡겨 갈무리를 해놓아야 한다. 여름 내 비어있던 곡식창고를 손보고 콩이며 깨, 고추같은 밭곡식의 그릇들도 꼼꼼히 챙겨놓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손이 마음보다 더 다급하다. 그러는 사이 하늘은 서늘하게 높아져가고 한낮의 짙은 햇볕은 한 시도 쉬지 않고 산중의 과일과 들판의 곡식들을 땡글땡글하게 익혀놓는다. 고개를 돌리면 눈이 가는 곳마다 붉고 노란 가을빛깔이 물들고 앞뒤마당의 감나무엔 탕탕하게 붉이 부은 감들이 가지가 축축 늘어지도록 매달려 있다. 부쩍 식욕이 늘어 끊임없이 풀을 뜯는 소와 염소는 등쪽에 살이 올라 털가죽이 반드르르하고 여름 내 나무그늘만 찾아다니며 축 늘어져 있던 누렁이도 주인을 따라 동네 골목길로, 들판으로 물색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 동네 골목길엔 당국화, 분꽃, 맨드라미 등등의 꽃들이 일제히 피어서 돌담장 위에서 누렇게 익어가는 호박들을 올려다 보고 있지만 한가하게 꽃 따위에게 시선을 나누어 줄 마음의 여유가 가을농민들에겐 없다. 산과 마을과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난 꽃들과 놀아주는 건 식구들을 모두 추수하러 내보낸 후 남겨져 저들끼리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일손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 키 작은 아이들뿐이다. 이젠 아이들도 부모의 보살핌없이 가을꽃처럼, 열매들처럼 저들 스스로 피고 익어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천지를 밝고 투명하게 비추며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가을햇빛, 가을의 시간이 김윤민 화백의 그림 속엔 여전히 살아있다. 풍족하고 여유롭지는 못했지만 가난도 그러저러 견딜만하다고 생각하던 시절, 자연이 주는 혜택과 축복에 순응하며 살던 시대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풍경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화법으로 천진한 서정의 세계를 일관되게 그려온 그의 그림 속에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매몰되고 잊혀진, 오염되지 않은 천심들이 살아 숨쉰다. 눈부신 가을의 한낮, 들판엔 곡식들이 소리없이 익어가고 맑은 햇빛이 속속들이



김윤민작 '가을' (45.5X37.9cm Oil on canvas)

스며들어 투명하기조차한 산들은 마을 가까이로 한걸음 성큼 다가서 있다. 탱자나무 울타리를 가진 초가집 앞마당의 감나무엔 가지가 휘어지도록 주렁주렁 감들이 매달려있어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긴 장대로 감을 따는 아이는 장대 끝의 하늘이 너무 깊어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리지만 바구니를 든 여자아이는 행여 감이 떨어져 다칠세라 장대 아래를 종종걸음으로 따른다. 마을의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쯤 가지지 않은 집은 없지만 하늘이 내린 그 어떤 수확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리고 그림 속의 여자아이는 어쩌면 얼마간의 감들을 읊내 오일장에 내다팔아 요긴한 무언가를 가질 꿈에 가슴 설레기도 할 것이다. 그런 가을의 풍경들은 농촌에서 뼈를 키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기억 중의 하나이다. 가을이라는 시간이 주는 분주함과 수확을 앞둔 설렘의 기억들이 몸 속 어딘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어느 일상과 별다를 바 없어도 가을이 되면 웬지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바빠지는 버릇이 되살아나는 것일 게다. 한 사람의 일 년이, 한 사람의 생애가 다음의 시간, 다음의 세대를 위해 거두고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버릇. 아무래도 가을은 제 몸과 마음에 깃들어 쌓여있는 시간들, 버릇들을 헤아려 보지 않고는 못건디게 하는 계절임에 틀림이 없다.

형식과 염(念)

유상훈 · 연극배우



연극 패션 오브빌라도

올해는 어쩌다 종교와 관련된 연극을 두 편 하고나니 벌써 시월이다. 불교와 기독교와 관련된 연극들이었다. 오래 전 지리산 속 00궁(宮)이라는 단군을 모시는 곳에 가 본 적이 있다. 그곳에서 100일을 지내면 새로운 이름도 지어준다고 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집단의 신전 같은 곳으로 안내되어 두 번 인가, 네 번인가의 절을 하였다. 절이야 낯선 행위가 아니니 쉬이 시키는 대로하고 점심이라고 곡물가루로 만든 멀건 죽을 어색하게 얻어먹고 왔었다.

내려오기 직전에 곧 연못을 만들 거라는 빈터를 둘러보며, 늘 부정(不正)과 불안(不安)을 배회하던 나로서는 궁주(宮主)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 편안하십니까.” 그는 의아한 눈초리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었다. 나에게 염(念)까지 헤아려 주길 기대 했던지 난 별다른 감흥을 받지 못한 채 그곳을 내려왔다.

어릴 때는 멋모르고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었다. 지금처럼 도심 속의 네온싸인 십자가들 대신 주거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부터 땡그랑 땡그랑 예배당 쇠종 소리가 울렸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높은 천정, 기름 냄새가 나는 넓은 마루에 풍금소리를 들으며 방석 하나 하나에 조심스러이 들어가 앉으면 정면엔 근접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단상이 올려다 보였다.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고 고개 숙여 기도도 했었다. 그때 무슨 마음을 불러 일으켜 기도했는지는 결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때의 형식과 절차, 공간이 주었던 숭고미(美)는 큰 교육적 가치로 내 속에 남아있다.

나이 들어 우리 것의 근간을 찾다보니 어찌 불교를 피해갈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여행이라 하여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곳곳이 자연과 친화된 절들이 위치해 있으니 아니 들를 수가 없으리라. 둘러 일행과 함께 본당이나 대웅전에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한 채 읊을 할 때면 그 순간, 예전엔 이러저러한 생각들도 있었는데 점차로 염(念)을 거두고 행위에 전념해져 간다. 형식이라는 것이, 긴 의미의 여정이 정착된 압축의 이미지일 테니 나쁠 것도 없겠지 하고 신발 신고 나온다.

교통과 통신이 더딘 시절에는 그 사람이 보고 싶으면 무척 그리워하다 그리움이 사무쳐 견디지 못해

그를 만나러 집을 꾸리고 집을 나섰을 것이다. 그 사람도 내일쯤 손님이 올 것이라 집을 치우고 아침이면 까치도 울었으리겠다. 그렇게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 아사달은 아사녀와의 목숨을 건 염원의 공덕으로 석가탑을 완성하고 춘향과 춘향모의 열렬한 염의 덕이 이몽룡의 장원급제를 도왔다는 게 어찌 단지 요설에 불과한 얘기겠는가. 40일이면 인간의 모든 세포가 교체된다고 한다. 매일 죽고 태어나는 세포들의 인간 육신 속에서 한 주기인 셈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노아는 방주를 타고 40일을 떠돌았고 예수도 광야에서 40일간의 배회기간이 있었다 한다. 모세는 난민을 이끌고 40년이 지나 정차지에 도착하였다고도 한다.

우리에게 100일 기도란 것이 있다. 100일 이라는 간절한 마음의 연속은 고평도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 나도 사람이 좀 되어 보려고 100일 기도를 한 적이 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생활과 연극 연습 속에서 금주와 금연과 또 다른 금연을 지키며...

결론은 염(念)을 키우지 못한 100일의 견딤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아마 우리의 100일은 내 생각에 업(業)으로서 되 집는 염의 또 하나의 주기라 볼 때, 그렇게 새로운 염의 생성과 소멸에 전념해야 할 생명력애다가 숫자의 역지를 매일매일 붙여 넣었으니... 작심 3일이란 말도 있다. 어느새 염의 세계는 3일이면 새로운 조건과 환경의 기억에 들어선다는 말이라.

그래서 도가(道家)에서는 깨우칠 놈은 3일이면 깨우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30일 백일 3년. 맑은 마음에 염은 무차별 생성되니 잡념을 지우려고 그랬는지 득음의 경지를 위해 공부하던 소리꾼들은 명산을 옮겨가며 수련을 했다한다. 하지만 우리 연극인들이야 이 공간 생활의 터전을 떠나지 않은 채 염을 불러 일으켜 세워야한다. 그러다 보면 잡다한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염을 맞이하여, 수용하던 싸우던 견뎌내고 무대 위에서 그어야 할 선을 그어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형식이 [좋은 예(例)는 아니겠지만] 차려놓은 진수성찬 찾아가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것도 흥겨운 일 일 테지만 흠어진 나락 쓸어 모아 쌀 지어 밥 올리고 주린 이 두루 모아 한 그릇 나누는 일로서 누라서 도락(道樂)이 아니라 하겠는가 자위한다면...

각설하고 아무튼 빈산에 물이 고여 개울로 흐르고 강이 되어 흘러간 바다가 지구를 덮고 있듯 인간 생명엔 끊임없이 염이 흐를 것이다. 계층에 절실한 염원들 불러 모아 간절한 반복을 통해 공자님이 말씀하시던 예(禮)의 형식에 다다른은, 우리 작업자들이 도달해야할 예(藝)의 여정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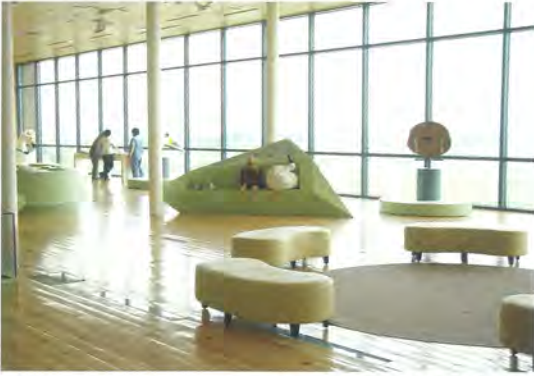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학습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6월 개관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가 바로 그곳. '에코(Eco)'는 생태학과 자연환경을 뜻하는 'Ecology'를 줄인 말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과 참여의 장으로서의 바람을 담고 있다.

에코센터는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던 을숙도 일대의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복원시킨 '을숙도 철새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2004년 국제건축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일본건축가 야마시타 야스히로가 설계한 에코센터는 연 면적 1,233평에 지상 3층 건물로, 5개의 테마존으로 꾸며진 전시실과 영상실, 탐조대, 회의실과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우선 1층 입구에 들어서면 대형 조형물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층 전시실로 올라가는 중앙계단 옆 공간을 이용해 설치된 이 조형물은 1층에서 2층까지의 공간을 3단 높이로 나누어 가장 아래쪽은 어류와 식물류, 중간 지역은 수면에서 활동하는 조류와 식물, 그리고 위쪽은 하늘을 나는 붉은부리갈매기가 모빌로 전시되어 있어 전시실로 올라가는 관람객들이 물속부터 하늘까지 한눈에 입체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다. 중앙홀에 설치된 84인치 대형 PDP를 통해서도 낙동강의 영상과 에코센터 앞에 마련된 인공습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인공습지 관찰을 위해 건물 옥상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과 겨울, 철새가 많은 시기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CCTV를 조정하며 실시간으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2층 전시실은 모두 5개의 테마존으로 꾸며져 있다. 낙동강 발원지에서 하구까지를 지도로 그려놓은 1존에서는 강과 만나는 산과 하천, 습지의 생성과 기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 하구의 형성과정과 지형변화, 다양한 생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2존에서는 대형 영상을 통해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나며, 전시장 바닥에는 밟으면 반응하는 특수영상이 설치되어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전시장 3존에서는 동식물 플랑크톤과 습지식물, 어류, 조류 등 하구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먹이사슬을 디오라마(축소 재현)로 연출해놓았다. 4존에서는 랍사보호종인 쇠제비갈매기를 비롯 도요물떼새 등 철새들의 생활상과 비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니의 서식환경을 영상과 디오라마로 관찰할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 문을 연 생태학습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다섯 개의 테마존으로 꾸며진 전시실과 영상실, 탐조대 등을 갖추고 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지난 6월 개관 후 매월 하구답사와 곤충관찰, 식물관찰, 갯벌체험 등 다양한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 있다.

5존에서는 철새모형을 통해 철새들의 크기와 무게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남쪽 전망창을 통해서도 탐조망원경으로 인공습지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5존에 마련된 미니도서관에는 도감, 논문 등 환경관련 전문도서와 생태계 관련 동화책 등 200여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에코센터 주변에는 인공습지와 철새 도래지가 분포해 있어 자연을 만끽하며 철새를 탐조할 수 있다.

에코센터는 개관 후 매월 하구답사와 곤충관찰, 식물관찰, 갯벌체험 등 다양한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신청이 폭주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0월에는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갈대체험(14일, 18일, 25일)이 마련되고 철새가 날아오는 11월과 12월에는 5학년 이상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철새 탐조(11/18일, 12/16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 지난 8월 향토학자 주경업 선생의 강의로 진행된 '재미있는 낙동강 하구 이야기'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사진작가 최민식 선생의 '알기쉬운 사진이야기', 12월 9일에는 김진한 조류박사의 '재미있는 철새이야기' 등의 특별강좌가 열릴 계획이다.

개관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평일에는 300여명, 주말에는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를 찾고 있다. 에코센터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7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20인 이상 단체일 경우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다.

평소에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아름다운 남구' 자원봉사자라도 활동해온 한 자원봉사자 남임주 씨. 이곳의 자원봉사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관람객이 드문 시간에는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우연히 들렀다가 아이들과 다시 찾아오겠다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자원봉사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는 그는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겨울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센터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낙동강하구 에코센터(888-6861/209-2000, wetland.busan.go.kr)

클래식음악이 있어 아름다운 황혼 '아름다운 60대' 부울경남지부 클래식음악방



다른 동호회와 달리 회원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아름다운 60대' 부울경남지부 클래식음악방(사진은 지난 4월 필하모니에서 열린 제 1회 정기모임)

태풍 '나리'가 북상하던 지난 9월 15일, 세차게 퍼붓는 비 속을 뚫고 클래식음악카페 '필하모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클래식음악동호회 '부산필하모니'의 살롱음악회가 열리는 날. '아름다운 60대' 부울경남지부 클래식음악방(이하 아름다운 60대) 회원들도 하나 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추석연휴가 다가오면서 '아름다운 60대' 9월 정기모임을 살롱음악회로 대체한 것.

'아름다운 60대'는 클래식음악이 좋아 모인 아마추어 동호회이지만 다른 동호회와 달리 회원 모두가 60대를 넘긴 실버 모임이다. '아름다운 60대'는 지난해 10월 '클래식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현재 '아름다운 60대' 회장으로 있는 전을영씨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결성한 '클래식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해 12월 전을영씨가 즐겨찾던 클래식음악카페 '필하모니'에서 창립 음악감상회를 갖고 첫 출발을 알렸다. '클래식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대부분이 온라인 동호회인 '아름다운 60대' 부울

경남지부 회원들이라 자연스럽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던

중 동호회 활동이 입소문을 타게되면서 올해 2월 온라인상에 공식적인 소모임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소모임방이 개설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된 '아름다운 60대'는 지난 4월 25일 제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아름다운 60대'로 새롭게 첫 발을 내딛었다. 필하모니에서 열린 첫 정기모임은 동호회 출발을 자축하는 의미로 작은 음악회가 열렸는데,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아코디언 연주자 송용찬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로 그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아름다운 60대'는 매달 한차례 정기모임을 갖는다. 정기모임은 그 달에 열리는 공연 중 회

원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무대로 선택된다. 지난 5월 금난새 지휘로 열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11시에 만나요'로 두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고 6월에는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평화마당에서 열린 '동백섬 달빛음악제', 7월에는 대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한여름밤의 세레나데' 공연 관람으로 정기모임을 가졌다.

또 온라인 모임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회원들 간에 번개모임도 자주 열린다. 특히 부산필하모니가 주최하는 '살롱음악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편이다. 실력있는 연주자의 연주를 딱딱한 연주회장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40~50대의 젊은(?) 애호가들과 교류하면서 세대간을 뛰어넘는 음악사랑을 나눌 수 있어 회원들의 참석율이 높다.

회원들간에 끈끈한 정을 이어주는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덩달아 온라인 활동도 더 활발해졌다. 온라인에서는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회원들이 자신의 음악적 식견을 풀어놓거나 이제 막 클래식음악에 입문한 초보자들이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아름다운 60대'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 단, 회원들 대부분이 온라인동호회인 '아름다운 60대' 부울경남지부에 가입되어 있어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지되는 만큼 온라인 동호회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활동하기에 편하다.

5년 전부터 '아름다운 60대' 부울경남지부 회원으로 활동해온 정말숙 씨. 지난 4월 '아름다운 60대'를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접하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평소 클래식음악을 좋아했지만 바쁜 삶속에서 여유를 갖기가 힘들었다"는 그는 음악과 하는 요즘 매일 매일이 행복하다고 한다. 그는 정기모임 외에도 음악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들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름다운 60대' 모임을 이끌고 있는 전을영 회장. 직접 연주회를 가졌던 첫 창단모임처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아름다운 60대' 이름을 내건 연주회를 열고 싶다는 전을영회장은 올 연말에는 아름다운 황혼을 위한 유쾌한 송년음악회를 열어볼 계획이다.

■문의/아름다운 60대 부울경남지부 클래식음악방(<http://cafe.daum.net/sixty>)



매달 한차례 열리는 정기모임은 회원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클래식무대로 선택된다.(사진은 지난 9월 열렸던 부산 필하모니 살롱음악회)

두번째 무대 준비하는 북구의 꿈 낙동청소년예술단



낙동청소년 예술단(단장/전판상)은 12월 정기공연을 앞두고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매주 연습하고 있다.(사진은 오케스트라 단원들)

태풍 위니가 북상하고 있는 9월 16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시 북구문화빙상센터에 청소년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주말 문화빙상센터를 찾는 청소년들과 달리 묵직한 악기케이스를 들고 북구빙상센터를 들어서는 청소년들은 궂은 날씨에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북구 낙동청소년예술단 오케스트라 단원들. 이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는 어김없이 북구문화빙상센터 연습실에 모인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일요일이면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우리 단원들은 결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의가 대단합니다.”

낙동청소년예술단 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전판상의원이 단원들의 연습을 지켜보기 위해 북구문화빙상센터를 찾았다. 부산시의회에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맡고 있어 문화예술장르에 관심을 가져왔던 전판상의원은 청소년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낙동문화원과 청소년예술단 예술단 임원들이 찾아왔을 때 단장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다.

낙동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는 낙동청소년예술단은 북구청 청소년지원단체로 선정되어 있다. 지난 해 7월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용단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뽑았다. 현재 무용파트 40명과 오케스트라 파트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말에 모여 연습을 한다. 박헌주 씨가 지도하는 무용단은 토요일, 박종관 씨가 지휘봉을 잡는 오케스트라는 일요일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연습한다. 오케스트라의 경우 바이올린과 플룻, 첼로 등 악기 마다 트레이너를 따로 두고 단원들을 지도 하고 있고 무용단은 발레 훈련장과 재즈댄스훈련장이 단원들을 지도한다.

“학생들이 평일에는 학원 때문에 함께 모이기 힘들어요. 주말에 놀고 싶을텐데 연습실을 찾아오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플룻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서연숙 씨는 단원들이 연습은 물론 모두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면 자량이 대단하다.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보통 학교 특기적성시간과 학원에서 2~3년간 악기를 배운 아이들이다. 지난 해 첫 오디션 때는 미처 오케스트라 창단 정보를 알지 못해 오디션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창단 단원들이 7개월간 맹훈련을 거친 뒤 올해 2월 창단공연을 가진 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창단 연주 후 플룻과 클라리넷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 가진 2007년 오디션에서는 4: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낙동청소년 예술단(단장/천판상)은 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들로 구성된 무용단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 위/무용단, 아래/오케스트라)

특기적성 시간에 바이올린을 배운 박은택(금명초등 6년)은 낙동청소년 예술단에 들어와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단원들과 함께 연주하니 재미있고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즐겁다”는 박은택학생은 6·25를 기념해 지하철역에서 가진 연주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올해 오케스트라에 합류한 플룻주자 최성원은 혼자 연습할 때 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연습하는 것이 재미있어 일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북구 지역의 유일한 꿈나무들이인 만큼 낙동청소년예술단을 찾는 곳이 많다. 10월에는 구포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행사와 낙동민속예술제에 찬조 출연한다.

북구를 문화의 불모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을 접할 계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북구가 문화불모지라는 오명이 안타까웠던 천판상 관장은 낙동청소년예술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 단원들은 북구의 희망입니다. 단원들의 열정이 대단한 만큼 낙동청소년예술단을 부산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로 키우고 싶습니다.

요즘 낙동청소년예술단은 12월 9일 제 2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이다. 음악과 무용 등 예술을 통해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인생 60년 벗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여는 피아니스트 한명희



“평생을 음악과 같이 살아왔으니 청중이 바로 제 가족이요. 인생 60년을 돌아보며 가족들과 함께 멋있는 음악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부산대학교 한명희 교수가 10월 6일 환갑을 기념해 음악적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를 마련한다.

“정말 많은 분들이 흔쾌히 연주해주신다고 해서 기뻐요. 부산 음악의 역사이신 제갈삼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천재음악가 1호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 선생님, 한국 피아노 음악의 대모신수정 선생님, 경성대학교 장원상 교수, 세계 3대 콩쿨에 입상한 젊은 연주가 박종화 씨 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때 부터 사랑을 독차지 했던 한명희 교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 수업을 시작했다. 1982년 부산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서울을 떠나 부산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제 해운대 바다를 잠시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부산 사람이 되었다. 한명희 교수는 바다가 좋아서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달맞이고개에 그만의 연습 공간을 만들었다. 그의 스튜디오는 많은 음악가들이 찾는 연습공간 겸 사랑방이다. 1985년 부산에서 독주회를 가진 신수정 교수를 시작으로 정경화, 조수미, 백혜선, 문용희, 강충모, 레온 프라이셔, 박종화 씨 등이 한명희 교수 스튜디오를 다녀갔다.

연주자로, 대학교수로 바쁘게 살아온 한명희 교수는 인생 60년을 되돌아보며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뒤늦게 찾아온 슬럼프를 잊을 수 없다. 보스턴 콘서바토리 교환 교수로 1년간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은 매일 저녁 뉴욕의 음악회를 찾아다니고 새로운 시각으로 음악을 보기위해 노력했다.

“부산트리오를 결성한 뒤 부산은 물론 서울, 동경, 후쿠오카 등에서 많은 연주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나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테크닉에 집착하지 않고 음악을 음악으로만 느끼는 여유를 찾았어요.”

그는 요즘 ‘홀로 듣는 음악도 아름답지만 함께 듣는 음악도 아름답다’고 일깨워준 이해인 수녀님의 글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마스터클래스, 음악회를 통해 제자들의 귀를 열어 주고 싶다는 한명희 교수는 나이에 맞는 원숙함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으로 독주회를 열고 싶다.

‘미스터 옹 vs 미스터 옹’으로 만나는 2006년 한국희곡대상 수상 작가 김태수

“부산시립극단과 같은 해에 두 번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올렸던 작품은 서울에서 공연되었던 창작품 <칼맨>을 리바이벌 한 것이고 이번 작품은 부산시립극단을 위한 오리지널 창작 퓨전 뮤지컬입니다. 물론 어디에서도 공연한 적이 없는 초연작입니다.”

2006년 한국희곡대상을 수상한 최고의 작가 김태수 씨가 부산시립극단을 위한 퓨전 뮤지컬 ‘미스터 옹 vs 미스터 옹’을 집필,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그는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로 시작된 서민극 시리즈를 비롯하여 ‘베아트리카는 순수의 시대로 떠났다’ ‘칼맨’ ‘꽃마치는 달려간다’ ‘복어’ 등 수 없이 많은 흥행작을 탄생 시킨 장본인이다. 1986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파멸’이 당선되면서



연극과 인연을 맺은 김태수 작가는 정통극, 뮤지컬, 악극, 마당극, 오페라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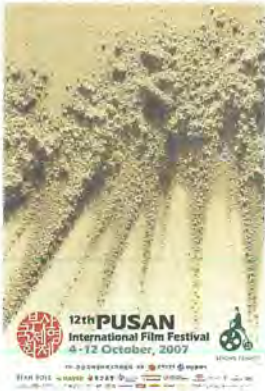
평소 지역에서 작품 의뢰를 받을 때 지역의 연극 인프라를 꼼꼼히 따지는 김태수 작가는 부산시립극단 손기룡 연출가와 2005년 울산연극제 심사위원으로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 작품을 집필하게 되었다. 부산시립극단 전 배우의 인적 구성,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해 부산시립극단에 맞는 작품을 완성했다.

1987년 연극계를 떠나 광고 프로덕션의 CF 감독,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기도 했던 김태수 작가는 8년 만에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극무대로 돌아왔다. 연극무대에 재 데뷔 했을 때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산의 극단 ‘하늘 개인 날’이 그의 작품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를 재공연하면서 이 작품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도화선이 되었다. 이 작품 외에도 부산에서 극단 ‘전위무대’가 ‘해가 지면 달이 뜨고’를 무대에 올렸고 올해 10월에는 극단 ‘사계’에서 ‘코메디클럽에서 울다’가 공연된다. 요즘 그는 내년 초 무대에 오를 대형 뮤지컬 희곡을 의뢰한 극단에 넘기고 막바지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미스터 옹 vs 미스터 옹은 퓨전 뮤지컬입니다. 고전과 현대가 절묘하게 섞여있습니다. 인간복제라는 무거운 주제가 경쾌하고 흥미롭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진지함을 요구하며 신명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동안 봐왔던 연극의 개념을 지우고 재미있게 보십시오.”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의 전국 흥행 물꼬를 열어준 부산 연극애호가들을 위해 자신 있게 준비한 ‘미스터 옹 vs 미스터 옹’ 초연무대가 기다려진다.

영화의 바다로 출항 12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로 자리잡은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4일 그 열두번째 항해를 시작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64개국 275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66편)와 자국에서 상영된 후 처음 부산에서 소개되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26편)가 역대 가장 많은 92편에 달하며 아시아에서 처음 소개되는 아시아 프리미어 역시 101편이나 상영될 예정이라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총 11개 부문의 공식 색션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월드 혹은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작품과 거장들의 신작 또는 화제작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과 새로운 시네아티스트 발굴을 위해 다양한 나라, 다양한 신예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선보이는 '플래시 포워드'가 새롭게 신설됐다. 개막작은 중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전쟁영화로, 참혹한 전쟁속에서도 바래지 않은 인간의 가치를 찾아가는 휴먼드라마인 펑 샤오강 감독의 '집결호'가, 폐막작은 1995년 TV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 열혈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새로운 극장판인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서(序)'가 선정됐다.

상영관은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야외상영장, 메가박스 해운대점, 프리미어시네마 해운대점, CGV 대연점, 대영시네마, 부산극장 등 6곳으로, 경성대학교 부근에 문을 연 CGV 대연점이 추가됐다.

■갈라 프레젠테이션

싱가포르에서는 드물게 시도된 음악영화인 로이스톤 탄 감독의 '881'과 아시아의 거장 허우 샤오시엔 감독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배우 줄리엣 비노쉬가 호흡을 맞춘 '빨간 풍선', 그리고 이명세 감독의 신작 'M'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장 임권택 감독의 백번째 영화 '천년학'이 상영된다.

■아시아 영화의 창

아시아 11개국 총 38편의 작품이 초청된 '아시아 영화의 창'은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놀라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자국영화의 시장점유율 50%를 돌파한 일본영화에서는 중견감독들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독립영화의 활약이 그 어느해 보다 두드러진 중국 감독들의 수작도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 세계시장을 향해 쾌속항진하고 있는 인도와 대만, 카자흐스탄의 영화가 상영된다.

■뉴 커런츠

모든 작품이 월드 및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소개되는 '뉴 커런츠'는 7개국 총 11편으로, 가족 해체로 인한 아픔과 그에 파생되는 문제를 다룬 '공원과 리브호텔(감독/구마사카 이즈루)', '빨간 콤파인(감독/차

이 상준), '주머니 속의 꽃(감독/생 텃 리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고민하고 고발하는 '톤도 사람들(감독/집 리비란)', '신 인간 개(감독/첸 싱잉)', '끝없는 밤(감독/판 지아린)', '아 바오 아 쿠(감독/가토 나오키)', 사랑의 기억과 아픔을 그린 '원더풀 타운(감독/아딧야 아사랏)', '궤도(감독/김광호)', '은하해방 전선(감독/윤성호)', '나의 노래(감독/인슬기) 등이 상영된다.

■ 한국영화의 오늘

'과노라마' 부문에서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비롯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감독들의 새로운 영화 12편이, 저예산 혹은 독립적으로 제작된 영화를 조명하는 '비전' 부문에서는 전수일 감독의 '검은 땅의 소녀', 장률의 '경계' 등 7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 한국영화 회고전

올해 한국영화 회고전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영화계를 군림했던 배우 김승호를 조명하는 '김승호:아버지의 얼굴, 한국영화의 초상'과 영화제작 과정에서 한국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한국인을 주 관객대상으로 제작한 영화 가운데 제작된지 50년 이상이 된 영화들 중 문화재청이 선정한 등록문화재 7편이 상영되는 '새로운 문화만들기:등록문화재 영화 특별상영'이 준비되어 있다.

■ 월드시네마

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4개월, 3주... 그리고 2일(감독/크리스티안 문쥬)'과 칸영화제 60주년을 기념해 감독 35명이 참여한 기념영화 '그들 각자의 영화관' 등 주요 영화제 수상작과 화제작,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루마니아, 이스라엘, 멕시코의 영화를 소개한다.

■ 와이드 앵글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다큐멘터리네트워크(AND) 지원작과 '코닥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 작품들, 부산영상위원회와 한국 아비드의 '부산 HD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작품들, 그리고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서 엄선된 단편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선보인다.

■ 오픈시네마

수영만 요트경기장 야외상영장에서 상영되는 '오픈 시네마'는 일본 최고의 인기스타 기무라 다쿠야 주연의 '히어로(감독/스즈키 마사유키)'와 2006년 PPP 프로젝트인 '블러드 브라더(감독/알렉시 탄)', 발리우드영화 '치니 쿵(감독/R. 발키)' 등 7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 플래시 포워드

올해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된 재미교포 2세 감독 리 아이작 정의 데뷔작 '문유랑가보', 2007 소치영화제 신인감독상 수상작인 '집행자(감독/알렉세이 미스키레프)' 등 11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 미드나잇 패션

서극, 조니 토, 임영동 감독의 공동연출작 '트라이앵글', 러시아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러시아판 '반지의 제왕'인 '울프하운드(감독/니콜라이 레베데프)' 등 작품성 보다는 대중성을 위주로 선정된 12개국 1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 특별전-아시아작가영화의 새지도그리기, 에드워드양 타이베이의 기억

자국 영화계에 미친 영향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각국의 감독을 소개하는 '아시아 작가 영화의 새지도 그리기'에서는 이란 영화를 세계에 알렸던 이란의 다리우스 메흐르지 감독을 소개하며, 지난 6월 생을 마감한 대만 뉴웨이브의 선구자 故 에드워드 양을 추모하는 '에드워드 양-타이베이의 기억'도 올해 특별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다.

2007 부산국제합창제

전야대음악회, 합창경연대회, 갈라콘서트, 만남의 콘서트 등 개최

10월 31일 ~ 11월 3일 부산문화회관



세계 각국의 25개 합창단과 대한민국의 14개 합창단이 참가하는 2007 부산국제합창제가 10월 31일 전야음악회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이 오른다.

2005년 APEC을 기점으로 부산에서 시작된 부산국제합창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40개 합창단이 참가해 열띤 경연과 축제의 장을 펼쳐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 우승팀인 University of The East Chorale을 비롯하여 체코, 루마니아, 독일, 러시아 등의 합창강국 북유럽의 합창단과 미국의 전통적 가스펠 합창단, 아시아

합창의 강자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참가, 부산에서 전 세계 합창음악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국제합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전야대음악회를 연다. 300여명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합창단이 연합합창단을 구성하여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안익태 작곡의 '한국환상곡'과 베토벤 심포니 9번 4악장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정상급성악가 박정원, 류현수, 이은민, 박대용과 소리꾼 장사익이 특별출연한다.

전야대음악회 이후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부산문화회관에서 본격적인 경연이 펼쳐진다. 2006년에는 클래식과 민속음악, 대중음악의 3종목으로 경연이 펼쳐진데 이어 올해 2007년 대회는 클래식 동성(남성, 여성), 클래식 혼성, 민속음악, 대중음악의 4종목으로 열띤 경쟁을 치르게 된다. 예년과 달리 유럽의 강호들이 대거 참가해 유례없는 혼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권위있는 합창지도자 5인과 한국합창총연합회 구천이사장(전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한국합창조직위원회 배승택 예술위원장(부산교육대 교수) 등이 이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한다. 합창경연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11월 3일에는 경연참가자들의 시상식과 함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부산국제합창제는 경연행사 외 갈라콘서트와 만남의 콘서트로 합창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11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합창단 중 가장 우수한 합창단의 갈라콘서트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시내 곳곳에서도 만남의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만남의 콘서트는 부경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동서대학교, 영산대를 비롯한 부산의 대학교들,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그들의 음악을 접할 수 있다. 서면 중심가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그들은 찾아가서 부산시민들에게 놀라운 합창의 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이홍렬이 만나는 11시 토크콘서트

10월 5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심수봉, 김영임 등 화제의 연주자를 초청,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에게 편안한 무대를 열어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0월 5일 오전 11:00 박호성과 이홍렬이 만나는 11시 토크콘서트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두터운 팬 층을 갖고 있는 이홍렬의 진행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지역의 저명 여류인사들을 초빙하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박호성과 그들의 삶과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이다. 흥겨운 장단과 경쾌한 선율로 첫 토크 콘서트를 열어갈 대담자로 부산점자도서관 이경혜 도서관장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전봉진교수가 초청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불문과와 프랑스 국립 툴루즈대학(박사과정)을 졸업한 이경혜도서관장은 김성동 소설 '만다라' 를 불어로 번역하여 '콩쿠르 문학상' 번역상을 수상했다. 후천적으로 시력이 나빠져 현재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이경혜관장의 아름다운 삶과 인도 비스바라더 국제대학에서 인도 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전봉진 박물관장의 삶과 일과 우리문화 사랑을 들어본다.

이번 무대는 특별히 국악인 김혜란, 곽은아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다. 김혜란은 KBS민요대상수상, KBS국악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준보유자, 우리음악연구회 총 예술감독, (사)한국민요연구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무대에서 김혜란은 새로 만든 노래와 국악관현악 '사람살이야' '배 띄어라'를 들려준다. 새로 만든 우리노래는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로 만든 노래를 전통적 창법으로 노래 부르면서 관현악과 함께 어우러져 연주되어 새로움을 만들어 낸다.

개량가야금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곽은아가 연주한다. 곽은아교수는 1회 KBS주최 서울국악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하고 일요명인창전 가야금독주(국립국악원), 1997 가야금역사 축제 독주(국립국악원)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해왔다. 곽은아가 들려주는 개량가야금을 위한 '재산조'는 22현 가야금을 위해 작곡된 곡이다. 산조가락을 바탕으로 하지만 산조의 느리고 차츰 빨라지는 장단구조가 아닌 빠르고 느르고 빠른 새로운 형식의 곡이다.



박호성



이홍렬



이경혜



전봉진

- 입장료 :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 30%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3회 정기연주회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곽승

지난 9월 20일 세계적인 작곡가 故 윤이상의 민족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의 역사적인 한국 초연무대를 선보였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0월 12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 433회 정기연주회로 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지휘자 곽승이 객원지휘하고 최근 아이리시 챔버오케스트라와 아일랜드 및 중국 투어를 마쳤던 피아니스트 김혜정과 바로크와 고전, 낭만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력을 인정받는 창원시립합창단 여성단원들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가단조 작품 43'과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작품 32를 들려준다.



김혜정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전 유럽에 이름을 떨쳤던 명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작품 중 24개의 카프리치오는 라흐마니노프 뿐 아니라 리스트, 브람스 등 많은 작곡가들의 흥미를 자극했는데, 이 테마를 이용해 작곡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가단조 작품 43'은 짧은 서주와 24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동반한 피아노 음악 중에서 특히 이채로운 작품으로 꼽힌다.

현대음악가 홀스트의 대표작인 관현악 모음곡 '행성' 작품 32는 화성,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7개의 행성을 4관 편성에 수많은 타악기, 2대의 하프와 첼레스타, 오르간 등 다양한 악기군에 여성합창까지 포함하여 표현한 대편성의 혁신적인 곡이다. 작곡 당시 '점성술'에 빠져있던 홀스트가 1914년 작곡을 시작하여 2년만에 완성했고 '전쟁의 신 화성', '평화의 신 금성' 등 각 곡에 부쳐진 부제에 따라 개성적인 색채가 넘친다. 창원시립합창단 여성단원들이마지막 곡인 '해왕성'에서 여성합창을 들려준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가단조 작품 43'을 들려줄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정은 14살의 나이로 링컨센터에서 첫 국제 데뷔무대를 가진 이래 그동안 런던 로얄 필하모니, 모스크바 필하모니,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NHK심포니, 바르셀로나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로린 마젤, 샤를르 뒤트와, 드미트리 키타옌코, 예후디 메뉴힌, 정명훈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국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 김혜정은 그동안 쾰른 국제피아노콩쿠르 및 디안젤로 영 아티스트 콩쿠르 1등, 지나 박하우어 국제콩쿠르 최고상, 마리아 칼라스 국제피아노콩쿠르 최고상 등을 수상했으며, 1995년과 1996년 한국을 빛낸 음악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과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제 123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민요가 있는 가을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한국초연무대를 성공리에 마친 부산시립합창단이 10월 18일 우리의 감성이 살아있는 '가곡과 민요가 있는 가을' 무대로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난다.

김강규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무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베이스 오현명 선생과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을 초청, 가을의 정서와 어울리는 친근한 우리 가곡과 흥겨운 민요로 따뜻한 무대를 열어준다.

고향과 친구, 어머니에 대한 추억 속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첫무대는 이흥렬 곡 '고향 그리워'로 연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그리운 고향의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짓는 가을밤의 서정을 담은 '고향 그리워'에 이어 현재명 곡 '고향생각', 박태준 곡 '동무생각', 정세문 곡 '옛 이야기',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김동진 곡 '가고파'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흥겨운 우리 민요 새 타령과 총각타령, 뱃노래로 가곡과 민요가 있는 가을 무대를 장식한다.

이번무대를 위해 오랜만에 부산무대에 서는 베이스 오현명은 1947년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1950년 오페라 '카르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53년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출강했고 1958년 문화시찰단이 동남아시아를 순회할 때 독창자로 활동했다. 1964부터 1983년까지 국립 오페라단 단장으로 활동한 오현명선생은 오페라 연출에 대해 공부한 일은 없으나 전문가 이상의 능력으로 한국 대부분의 오페라 공연에서 연출을 맡아왔다. 1974년 타이베이(臺北)에서 <토스카 La Tosca>를 공연하기도 했다. 오현명은 1964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있으며 후진 양성에도 열정을 쏟아왔다. 이번무대에서는 오현명선생은 김소월시, 하대응곡 '뭇잎어' 양명문시, 김동진곡 '명태'를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은 1989년 비인국립음악원에서 Diplom을 마친 후 귀국하여 부산에서 후진양성과 함께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쳐왔다. 백재진은 수차례 독주회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코리아 신포니에타와의 협연무대 등을 가져왔다. 실내악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온 그는 서울에서는 실내악단 화음, 대구지역에서는 한국아카데미첼버 앙상블, 부산에서는 비르투오조 앙상블리더로 연주활동을 해왔다.



김강규



오현명



백재진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시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 제 30회 정기공연

미스터 옹 vs 미스터 옹

10월 25일(목) ~ 27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손기룡

2007년 수전노, 칼팬을 선보인 부산시립극단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 '미스터 옹 vs 미스터 옹'으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미스터 옹 vs 미스터 옹'은 판소리 12마당 중 하나인 풍자소설 '옹고집전'을 현대적인 퓨전을 가미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퓨전창작뮤지컬이다.

2006년 한국희곡대상 수상에 빛나는 김태수 작가가 우리의 고전 옹고집에 현대적인 옷을 입힌 이번 작품은 부산시립극단 손기룡 연출가가 연출을 맡고 동아대학교 박철홍 교수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작곡·편곡자인 백규진이 음악을 맡아 동서양의 조화로운 음악과 흥겨운 춤으로 재미를 더해준다.



김태수

특히 이번 무대는 국악과 양악을 동시에 접목시켜 각각의 음색을 살린 음악 외에도 고전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 넣어 맛깔스러우면서도 소박한 흥과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이룬 퓨전 무대, 의상 등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고전 '옹고집전'은 월출봉 취암사의 도사가 도술을 부려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잘못을 깨닫아 새로운 삶을 산다는 내용이지만 김태수 작가는 전세대가 알고 있는 옹고집에 조선시대 복제인간 가짜 옹고집을 창조해냈다. '미스터 옹 vs 미스터 옹'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교훈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진미

김태수 작가는 부산시립극단 제29회 정기공연 '칼팬'으로 부산연극 애호가들과 미리 만난 바 있다.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서울 열목어' '나비는 천 년을 꿈꾼다' 등으로 잘 알려진 김태수작가는 2006년 한 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작가에게 주는 한국희곡대상을 수상한 이시대 최고의 작가이다.

이번 무대에는 부산출신의 일렉 바이올리니스트 도진미가 특별출연, 뮤지컬에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중앙대학교관현악과를 수석 졸업한 도진미는 김해문화의 전당 New Jersey Philharmonic Orchestra 내한공연 협연 무대를 비롯 Guam Summer Music Festival, Hong Kong Convention Center 기념 연주, Busan jazz concert 김준과의 연주 무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입장료 : 일반 R석 15,000원 · S석 10,000원/청소년 R석 8,000원 · S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7 부산연주인 시리즈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4회 정기연주회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제 434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0월 30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2007 부산연주인 시리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민, 피아니스트 백민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역시 2007 부산연주인 시리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작곡가 백용주의 '관현악을 위한 무념(無念)'을 비롯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 영남작곡가협회 고문이자 동아시아 작곡가협회 회장으로서 활동하는 작곡가 우종역의 '백두산'을 들려준다.

경성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백용주는 아시아 작곡가연맹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ACL-Korea 신인콩쿠르 우수상, 서울음악제 실내악부분 입상, PAN Music Festival 젊은작곡가 부문 입상, 부산시립합창단 합창창작곡 공모 당선, 난파음악제 작곡부분 입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임지민



백민정



백용주



우종역

조곡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 47'을 들려줄 임지민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영재입학 1학년으로, 그동안 3차례의 독주회를 비롯 이원꿈나무콘서트 독주회, 금호영재콘서트 독주회, 영산아트홀 젊은이의 음악제 초청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20세기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꼽히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을 들려줄 백민정은 현재 뉴욕 메네스음대와 이탈리아 이폴라 피아노 아카데미 전문연주자 과정에 재학중이다. 11살의 나이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협주곡의 밤 오디션에 합격하여 데뷔연주회를 가진 백민정은 미국 시카고 스키키 벨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콩쿠르 1위, 이탈리아 라흐마니노프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뉴욕 예술재단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우종역의 창작관현악곡 '백두산'은 백두산 정상에 올라 천지를 바라본 환희를 통해 조곡에 대한 사랑과 한국적 서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계명대학교 음대 학장을 역임한 작곡가 우종역은 한국 현대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원로작곡가로 대한민국 작곡상, 오늘의 음악가상,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물센터 96-97 올해의 국제인물 및 20세기상, 폴란드 국가십자훈장 등을 수상했다.

■ 입장료 : 일반 R석 15,000원 S석 10,000원/청소년 R석 8,000원 S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대극장

이태리음악연구회 창단 20주년 기념
제 26회 정기 연주회
1일 월요일 오후 7:30

이태리 국립음악원 등에서 수학하고 현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가 들려주는 창단 20주년 기념무대.

평소 자주 들을 수 없는 오페라 중창과 회원들의 합창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도니젯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사랑의 묘약도 파나요?'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언제나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오페라 '일트로바토레' 중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최창권/꽃동네 새동네

김범주/내가 만일 등 수록

출연

민상순, 정태미, 전해란, 이윤정(이상 소프라노), 한정영, 박소년(이상 메조소프라노) 장원상, 한남식, 강학윤, 권오중, 정거화, 김철수, 오동주, 박찬, 양승엽(이상 테너), 김경학, 김대성, 최기천, 고영호(이상 바리톤), 권영준, 김태형(이상 베이스)

· 합창지휘/이득수

· 피아노/차미소란, 안선애, 정미선, 윤민화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박찬(010-7315-7352)

동아 필 관현악단 창단연주회
2일 화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음악학부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아 필 관현악단 창단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동아대학교 출신 테너 방현호, 소프라노 민수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김동욱, 첼로 수석 양욱진, 피아니스트 정성흡의 트리플 콘체르트 무대가 마련된다.

프로그램

브람스/대학축전 서곡 작품 80

베토벤/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3중 협주곡 다장조 작품 50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별은 빛나건만' 등

· 지휘/이동신

· 협연/김동욱(바이올린), 양욱진(첼로), 정성흡(피아노), 민수연(소프라노), 방현호(테너)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박미정(010-9329-8455)

문정수와 함께 하는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3일 수요일 오후 7:30



문정수

이장호

박중훈

영화의 도시 부산의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을 영화음악 플러스 콘서트.

부산국제영화제를 앞두고 문정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 별들의 고향 이장호 감독, 라디오스타의 국민배우 박중훈, 노래하는 음유시인 국회위원 정두언, 소프라노 배수진, 이 심장병어린이를 돕기 위해 마련하는 감미로운 영화음악콘서트.

프로그램

고엽,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주제곡 'Moon River', 영화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영화 라디오스타 주제곡 '비와 당신' 영화 '별들의 고향' 주제곡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등 수록

· 반주/영남심포니오케스트라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501-3999, 019-501-3999)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이흥렬이 만나는
11시 토크콘서트

5일 금요일 오전 11:00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두터운 팬 층을 갖고 있는 이흥렬이 만나는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웰빙콘서트'.

부산점자도서관장 이경혜와 동국대학교 전

봉진교수를 초청, 흥겨운 장단과 경쾌한 선율을 들으며 그들의 삶과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프로그램

김선제/창작관현악 '아름다운 인생'

박춘석(편곡)/오늘의 만남을 위한 관현악 '인연'

박범훈/개량가야금을 위한 '새산조'

박호성, 박범훈(편곡)/새로만든 노래와 국악 관현악 '사람살이야, 배뒤편'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토크진행/이흥렬(오산대학교 이벤트 연출과 겸임교수, 방송인)

· 대담자/이경혜(부산점자도서관장, 전봉진(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 박물관장)

· 협연/김혜란(경기민요), 곡은애(가야금)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6개 광역시 및 제주도 무용
교류전

7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을 비롯한 광주, 울산, 인천, 대구, 대전 등 6개 광역시와 제주도의 무용단이 펼치는 무용교류전.

참가단체 및 작품

■ 광주광역시 김미숙 하나무용단 '가배'(연출/김미숙 · 안무/이세라 · 출연/이세라, 김근이, 정유경, 최혜진, 윤서경 외)

■ 울산광역시 박선영무용단 '처음아버의 노래'(안무/박선영 · 연출/이정화, 정은비, 이시은, 이소연, 이소현, 김한나 외)

■ 제주도 제주민속무용단 '허벅과 해녀춤'(안무/최길복 · 연출/이준열, 최길복, 김정현, 흥행자, 임장연)

■ 부산광역시 박현주 Wings Dance Company '사랑가'(안무/박현주 · 연출/박현주, 김희진, 최민영, 박지혜, 김경란, 김보경, 김희원, 박정민 외)

■ 인천광역시 해울예술단 '이고득락-천상의 몸짓과 소리'(안무/이정순 · 연출/이정순, 박소정, 창은희, 김나현, 이정현, 성지경 외)

■ 부산광역시 장정윤 순수현대무용단 '천마 절영 이야기'(안무/장정윤 · 연출/장정윤,

서유미, 강미란, 이수정, 정혜정, 문지혜 외)

▣ 대구광역시 이정일무용단 '가을여정' (안무/이정일 · 출연/최은미, 이효경, 장은영, 이윤아, 한진아, 지혜림, 박미정 외)

▣ 대전광역시 최영란무용단 '죽음, 그리고 또 다른 나...' (안무/최영란 · 출연/최영란, 이현수, 한혜경, 하설문, 하림풍, 장수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한국무용협회 부산지부(632-5116)

제18회 대학무용제

9일-10일 화-수요일 오후 7:30

대학생들의 순수한 창작열정을 만날 수 있는 2007 대학무용제.

올해는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 신라대학교, 부산예술대학, 경성대학교 재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9일

부산대학교-발레 'GISELLE(Act II)' (안무/주수광 · 출연/강선영, 벨리페 노르보예프, 이성희, 윤은정, 박정희, 김희진 외)

부산여자대학-한국무용 '별 헤는 밤' (예술감독/정경숙 · 안무/김성미 · 출연/김지혜, 김수련, 김진영, 김혜진, 성민영 외)

신라대학교-현대무용 '움직임의 합창' (안무/하정애 · 출연/강선경, 모신정, 윤도영, 양윤희, 황효경, 김유하, 장보라 외)

부산예술대학-현대무용 'Beyond The Death' (안무/김희은 · 출연/류동현, 선정찬, 최우석, 서득교, 이용진 외)

경성대학교-한국무용 'Let's go 수평선으로' (안무/이영희 · 출연/김영찬, 최정화,

신상규, 송윤경, 이꽃샘, 김동현 외)

■10일 수요일

경성대학교-발레 '여름 · 물 · 살아있는 에너지' (안무/신정희 · 출연/정두순, 최소정, 이세진, 정미경, 최연순, 서지연 외)

신라대학교-한국무용 '목木 · 요일의 그늘' (안무/정신혜 · 대본/조주현 · 출연/오선경, 맹안나, 강진희, 강아름, 김진희 외)

부산대학교-한국무용 '원화검' (안무/강미리 · 출연/권혜정, 권미정, 김민정(A), 김민정(B), 박혜진, 손민지 외)

부산대학교-현대무용 '만상(萬象)' (안무/정귀인 · 출연/김소영, 박주영, 하지원, 권윤희, 김보경, 김현진, 박미림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경성대학교(620-496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젊은 성악가의 밤

11일 목요일 오후 7:30



우수한 성악가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젊은 성악가의 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젊은 성악가들이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르디/ '일 트로바트레' 중 '고요하고 적막

한 밤'

도니체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주위는 침묵에 잠기고', '사무니의 린다' 중 '이 마음의 빛'

웨버/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내가 당신께 바라는 전부' 등 수록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소프라노 김희정(부산대 2년), 정은주(동아대 4년), 이정윤(동아대 4년), 테너 이상준(부산대 4년), 바리톤 박정원(경성대 4년)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6108~9)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3회 정기연주회

12일 금요일 오후 7:30



세계적인 지휘자 광승과 정상급 피아니스트 김혜정이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3회 정기연주회.

협연자 김혜정은 14세 나이로 링컨센터에서 첫 국제 데뷔를 가진 이래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국제 무대에서 연주를 해왔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다소 표제음악적 성격의 곡인 홀스트 '행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천문학 전문가가 각 행성에 대해 설명한다.

· 지휘/광승 · 협연/김혜정



감동을 함께 만드는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1 506-7332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여성합창/창원시립합창단
- 해설/박재문(덕문중 교사,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부회장)
-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명사들의 뮤직콘서트

13일 토요일 오후 7:30



배수진 김도형

문정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 국회의원 정두언, 텔런트 김병기, 부산의 성악가들이 영남 심포니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음악애호가들의 애창곡과 한국가곡, 영화음악, 클래식과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현재명/그집앞

도니젯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악장수와 네모리노의 이중창'

가요/향수, 사랑은 아름다워요, 최신사택 세째딸 등 수곡

출연

문정수(전 부산시장), 왕송 이석, 김병기(텔런트), 정두언(국회의원), 민정식(소아과의원원장),

김도형(베이스바리톤), 윤석(테너), 김정대(바리톤) 외

- 특별출연/부산대학교 prego 합창단
- 사회/소프라노 배수진
- 반주/영남심포니오케스트라

입장료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부산콘서트바트리
(501-3999, 019-501-3999)

부산 CBS 창립 48주년 기념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을의 향연

15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CBS창립 48주년을 기념, 한국이 낳은 최고의 지휘자 금난새와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가을의 향연.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마 단조 작품 64 등

- 지휘/금난새
- 연주/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오은영, 바리톤 이인철,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10,000원
문의 부산CBS(636-0050)

부산시립합창단 제123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민요가 있는 가을

18일 목요일 오후 7:30



가을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제 123회 정기연주회.

한국가곡의 산증인인 한국최고의 베이스 오현명과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을 초청, 우리에게 친숙한 민요와 가곡을 합창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이흥렬/고향 그리워

현재명/고향생각

박태준/동무생각

김동진/수선화, 목련화, 가고파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특별출연/오현명,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 사회/아나운서 안희성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2007 문화의 달 개막행사
地-땅의 울림

20일 토요일 오후 1:00

시민이 참여하는 300여명 대형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하여 취타대, 마살 아츠, 줄타기 등의 식전행사와 공식 기념식,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식, 국가명창 안숙선선생과 부산명창 박성희의 무대, 새울전통타악진흥회의 흥겨운 '타로'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경성대학교를 출발하여 부산문화회관으로 이어지는 대형 팔도풍물패와 1,000여개의 솟대를 부산문화회관 광장에 배치,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입장료 무료

문의 2007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888-3394)

2007 문화의 달 개막행사

人-사람의 몸짓 '한민족 교류'
21일 일요일 오후 6:00

같은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중국의 '연변 예술단', 러시아 연해주의 '아리랑가무단', 일본의 '재일동포예술단', 한국의 '춤 배김새'가 한자리에 모여 예술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중국 연변 조선족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김영철(장미모함곡 '투란도트' 주연), 림정(중국 중앙민족음악대학 교수),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재일동포출신의 리지혜 등이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입장료 무료

문의 2007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888-3394)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김 초청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연주회

22일 월요일 오후 7:30



오승근

데이비드 김

1999년 이래 필라델피아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종신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과 함께하는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연주회.

3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데이비드 김은 8세 때 도로서 딜레이교수를 사사하며, 줄리어드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데이비드 김은 1986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유일한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이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슬라브행진곡 작품 31,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교향곡 제 4번 바단조 작품 36
· 지휘/오충근 · 협연/데이비드 김

입장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BSO(620-4917~8)

**20세기 피아노의 거장, 건반위의 철학자
러셀 셔먼 피아노 독주회**

23일 화요일 오후 7:30



독창적인 해석,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시적이고 기품이 넘치는 음악세계를 보여주는 20세기 피아노의 거장 러셀 셔먼 부산연주회.

러셀 셔먼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피아니즘을 전수시킨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베토벤과 드뷔시 피아노 음악의 정수를 들려줄 이번 무대는 피아노의 명교수로 제자에게 헌신하고 남편에게 헌신적인 내조를 한 부인이자 명 피아노 교수인 아내 변화경(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교수)의 회갑을 기념하는 무대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두 대의 피아노로 함께 연주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17번 '폭풍'
베토벤/소나타 30번
드뷔시/목신의 오후 전주곡(Two pianos for four hands)

베토벤/소나타 '열정'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메니지먼트(747-1536)

메조소프라노 차순례

**Musical Concert
Music Of The Night**

29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와 프랑스 에콜노르말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차순례 교수가 들려주

는 뮤지컬 콘서트.

Jesus Christ Supersta, Maria, Maria, Miss Saigon, Jekyll and Hyde, Romeo & Juliet 등 유명 뮤지컬 영상과 뮤지컬곡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뮤지컬 배우 이건명과 동서대학교 뮤지컬학과 재학생들이 함께 한다.

입장료 초대

문의 동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320-1910)

**2007 부산연주인시리즈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4회 정기연주회
30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연주인시리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민, 피아니스트 백민정이 협연하고 작곡가 백용주, 동아시야 작곡가협회

최장우종역의 곡이 발표된다.

프로그램

백용주/관현악을 위한 무념(無念)
시벨리우스/바이올린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라흐마니노프/피아노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 18 등

· 지휘/이동신
· 협연/우종역, 임지민, 백민정, 백용주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2007 부산국제합창제 전야 대 음악회
코리아 환타지 인 부산
31일 수요일 오후 7:30**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탑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황도원디자인, 경주월드, 경안리미널드 연중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의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층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세계 각국의 40개 합창단이 참가하는 2007 부산국제합창제 축하전야대음악회.

민족의 슬기와 강인한 의지를 그린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을 비롯 웅장한 울림으로 인류애의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장사익의 농익은 소리로 부산 국제합창제 전야대음악회를 장식한다.

프로그램

안익태/한국환상곡

베토벤/합창교향곡 '환희의 송가'

최성환/아리랑

장사익/짚레꽃, 아버지, 강남아리랑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오종근)

· 합창/세계각국연합합창단 300여명

· 솔리스트/박정원(소프라노), 류현수(메조 소프라노), 이은민(테너), 박대웅(바리톤)

· 특별출연/장사익(소리)

입장료 1층 50,000원 · 2층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KNN(1577-7600,

www.knn.co.kr)

중극장

2007 대학 합창페스티벌

1일-3일 월-수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각 대학 합창단들이 아름다운 가을의 서정을 노래한다.

■1일(월) 신라대학교

모차르트/레퀴엠 K.626

아일랜드민요/대니보이

임우상/신 패지나 칭칭

김명자/흥부 놀부 이야기 등 수곡

· 지휘/박광하

■2일(화) 동아대학교

윌슨/뮤지컬코메디 'The Music Man' 중 '마차가 달려오네'

이스라엘 민요/쥘 갈리-호라춤을 추자

신작 한국합창곡/사랑하는 마음(임금수 작시, 작곡), 감자(김중영 작시, 이수인 작곡)

슈만/성자의 행진 등 수곡

· 지휘/김영규

■3일(수) 경성대학교

브람스/혼성합창 '아름다운 주의 장막'

서덕출/여성합창 '눈꽃송이 모음곡'

구노/장엄미사 등 수곡

· 지휘/한성웅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 실내악 페스티벌

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내악단들이 매년 가을 한자리에서 들려주는 실내악 페스티벌.

올해는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을 비롯 바운스앙상블, 부산뮤지카 비바트리오, 국악앙상블 '민들레', 부산플룻앙상블, 부산목관 5중주단이 출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마술피리 서곡

베버/ '마탄의 사수' 중 '사냥꾼의 합창'

비제/하바네라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2007 미야(美野)아트댄스컴퍼니 신작무대

꽃신 - The Wedding Shoes

5일 금요일 오후 7:30



미야 아트댄스컴퍼니 대표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온 강미희의 신작 무대 '꽃신'.

현대무용단 중 창단 단원으로 1989년 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제 6회 현대무용 신인발표회에서 '0' 지대로 데뷔한 강미희

는 일본 부토 · 전위무용가 다나카 민이 이끄는 마이주쿠 단원으로도 활동했다.

작품 '꽃신'은 현대인에게 잊혀진 아름다운 기억에 관한 향수(향수)로부터 출발한다. 한국적인 춤사위와 전위적이고 미니멀한 몸짓의 융합을 통해 조화와 부조화를 넘나든다.

· 안무, 연출/강미희

출연

장인숙, 문라옥, 이광호, 박기범, 강미희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 코리아(442-1941)

2007 아시아클라리넷 축제

6일 토요일 오후 4:00, 7:30



대전 원 클라리넷 앙상블(지휘/박태호), 아르스 클라리넷 사중주단, 광주 · 전주 클라리넷 앙상블, 경기 클라리넷 앙상블, 클라리온 앙상블

(지휘/이종욱),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클라리넷 챔버 오케스트라, 일본 칸사이 클라리넷 사중주단, 부산 클라리넷 콰이어가 들려주는 아시아클라리넷 축제.

프로그램

헨델/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몬티/차르다시

모차르트/클라리넷 사중주를 위한

'Andantino con Variazioni'

베버/클라리넷 협주곡 제 2번 내림 나장조 작품 74

한 · 중 · 일 민요모음곡 등 수곡

· 한 · 중 · 일 합동공연 지휘/정우영

· 협연/박재현(당진중 3년), 허은(보성여중 3년), 차호철(부산예고 2년), 권은진(계명대 1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 클라리넷 콰이어

(011-878-5508, 011-574-3687,

cafe.daum.net/busanclarinet)

권은영 여섯번째 거문고독주회

7일 일요일 오후 8:00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권영영 교수의 해금 독주회.

이번무대는 강봉천, 황의중, 정동희, 백현주 네 사람의 작곡자에

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던져 주고 각각의 방식으로 풀어낸 죽음을 연주자 자신의 호흡을 실어 거문고로 표현해 낸다.

프로그램

- 강봉천/망자풀이
- 황의중/거문고와 대금 위한 '인생 수업'
- 정동희/거문고와 가야금을 위한 2중주 '귀천'
- 백현주/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그리고 ... 봄
- 연주/권영영, 신광훈, 이정은, 하정희, 방재연, 김명진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 소리터(011-842-6942)

독일가곡연구회 제 32회 정기 연주회
8일 월요일 오후 7:30



1987년 창단, 그동안 독일가곡의 연구와 보급에 힘써 온 독일가곡 연구회가 들려주

는 제 32회 정기연주회.

독일어권에서 수학한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독일가곡연구회는 현재 김명규교수(동아대학교)를 회장으로 30여명의 회원이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 베토벤/신의 영광
- 드보르작/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 브람스/헛된 세레나데
- 슈만/헌정 등 수록
- 출연
- 김미성, 김현숙, 김현주, 황정원(이상 소프라노), 정옥심(메조소프라노), 김현식, 문대진(이상 테너), 김종화(바리톤)
- 피아노/공소현, 박미은, 임효진
-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김현식(011-566-4172)

제 34회 부산작곡가협회 창작곡 발표회
해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의 창작음악발전을 위해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온 부산작곡가협회 회원들이 들려주는 창작곡 발표회.

올해는 작곡가 강영화 회원의 해설가 함께 다양한 실내악곡을 발표한다.

프로그램

- 조혜선/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2중주
- 김국진/새타령주제로 한 '산(散)'
- 이승임/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걸어가는 길'
- 김성덕/피아노 트리오 1번 등 수록
- 연주
- 김태훈(클라리넷), 신진희, 김성희, 손정

화, 송학, 김미연(이상 피아노), 손양호(오보에), 양혜원(바이올린), 김기도(첼로)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옥영(018-505-5689)

부산시 구·군연합 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
10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시내 16개 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합창단 단원들이 연합합창단을 구성한 부산시 구군연합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올해는 연합합창단 외에 기장군여성합창단, 연제여성합창단, 사상구여성합창단, 사하구여성합창단이 특별출연, 아름다운 기울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아직도 내겐 음악이 있네, 여유 있게 걸게 친구, 가지산 역새바람, 귀뚜라미, 청산에 살리라, One Summer Night 등 수록
- 지휘/윤정윤 · 반주/이현주
- 입장료** 초대
- 문의** 김성미(010-5877-6088)

부산 피아노 듀오 협회 정기 연주회
11일-12일 목-금요일 오후 7:30



최윤희

김민정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함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 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돈가스 ₩6,000원 (디저트 포함)
- ★3단샌드위치+원두커피 ₩6,0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1990년 창단 이후 피아노 듀오음악의 연구 및 절고 역량있는 신인들의 데뷔 무대를 열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정기연주회.

이번 연주회는 11일 첫째날은 사제지간인 최윤희, 김민정 두사람이 장식하고 12일 둘째날은 김효진, 서영란, 공소현, 김미연, 박현정, 현미경, 김윤정, 김지현, 정미선, 전은영, 김경희, 박미은 총 6팀이 출연하며 낭만과 현대 작품의 세련되고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포레/돌리 작품 56

리스트/교향시 전주곡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모음곡 작품 71a 등 수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서숙지(018-563-6692)

2007부산오페라갈라콘서트 '콘서트 오페라' 도니체티의 오페라 루치아 (Lucia di Lammermoor) 13일 토요일 오후 7:30

오페라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오페라연구소가 마련하는 세 번째 '오페라 갈라콘서트'.

오페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설령 교수의 해설과 함께 주요한 장면을 끊어 오페라 전체를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니체티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루치아(Lucia di Lammermoor)는 1835년 나폴리에서 초연한 이래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오페라 대본의 소재는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1771~1832)의 소설 '람메르무어의 신부'에서 취재한 스코틀랜드의 이야기이다.

출연

소프라노 김한나, 테너 장진규, 바리톤 김상호, 베이스 김일석 외

입장료 VIP 5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부산오페라연구소(010-3038-7191)

장선희의 춤 풍경

14일 일요일 오후 7:00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는 장선의 춤 '풍경'.



이번 무대는 부산지방 무형문화재 제 14호 동래한량춤 보유자 후보 김진홍과 박대성 아쟁산조연구회 박대성에

솔감독이 특별출연한다. 특히 박대성류아쟁산조는 그동안 배운 제자들과 합주를 선보이고 박대성 선생이 직접 고수로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산조춤, 살풀이, 가야금 산조, 교방입춤, 아쟁산조합주, 승무, 지전춤, 동래한량춤, 오고무와 난타북

출연

김진홍, 박대성, 박환영, 임경주, 허봉수, 장선희, 김현임, 유정인, 권은주, 이승미, 하선주, 윤지은, 류현숙, 이주현, 최정민 외 · 사회 및 해설/최종민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장선희(010-9033-2959)

알렉상드르 파로 초청피아노콘서트

17일 수요일 오후 7:30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파 신예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파로의 두 번째 내한 공연.

알렉상드르 파로는 '라벨피아노연주곡 전곡'으로 아

카데미 샤를르 크로의 그랑프리, 디아파종도르, 몽드 드 라 뮤지끄 상, 올해의 최우수 'Standaard'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프랑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절찬을 받았다. 이번 두 번째 한국무대에서는 쿠프랭과 라벨의 작품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해석과 깊이 있는 연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쿠프랭/12개의소곡

라벨/미뉴엣(쿠프랭의 무덤 중에서 발레곡)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학생 10,000원

문의 부산문화(633-899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1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07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8일 목요일 오후 7:30



연주기량이 우수한 청소년들의 등용문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1회 청소년협연의 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유망주들이 박호성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다.

프로그램

김계옥/25현 가야금 협주곡 '아리랑'

하주희(편곡)/한갑득류 거문고산조 협주곡

이경섭/해금협주곡 '추상'

박범훈/25현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새산조'

이경섭/바람의 유희 등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협연/홍정현(25현 가야금, 원광대 4년), 이민영(거문고, 서울대 1년), 박선희(해금, 중앙대 4년), 박경선(25현 가야금, 중앙대 대학원), 김민애(소금, 부산대 대학원), 강우석(피리·태평소, 부산대 3년)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이종록 가곡 발표회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예능이수자, 무형문화재 영재 시조 이수자로 정가의 맥을 잇고 있는 이종록의 가곡발표회.

전주대사습 장원, 대한시조협회 본부대회 대상부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종록은 세 차례 영재시조 발표회를 가졌다. 이종록의 영재시조 음반

은 영국대영박물관과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품으로 지정되었다.

프로그램

우조 동창이, 우조 도화이화, 우조 조다가,
우조 벽사창, 반우반계 나무도, 계면 청석
령, 영제시조 평시조 자네 집 술 익거든 등
· 반주/이중대(피리), 송준권(해금), 박환영
(대금), 김남순(가야금), 권은영(거문
고), 이진희(장고), 이정필(단소), 이
정은(양금)

입장료 초대

문의 이종록(011-831-1792)

부산시립극단 제 30회 정기공연
미스터 웡 vs 미스터 웡

25일~27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극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퓨
전창작뮤지컬 '미스
터 웡 vs 미스터
웡'.

2006년 한국희곡
대상 수상에 빛나는
김태수 작가가 우리

의 고전 웡고집에 현대적인 옷을 입혀 조선
시대 복제인간 가짜 웡고집을 창조해냈다.

일렉바이올리니스트 도진미가 특별출연,
뮤지컬에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 작/김태수 · 연출/손기룡
- 작곡/박철홍, 백규진
- 안무/강희정
- 특별출연/일렉바이올리니스트 도진미

입장료 일반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청소년 R석 8,000원 · S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상해예술단 초청 공연
3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국의 10대 자랑
거리 중 하나로 세
계무대에서 각광받
는 서커스의 진수를
보여줄 상해예술단
이 부산광역시의회
초청으로 다양한 기
예공연을 펼친다.

입장료 초대(10월 1일~10월 20일까지 초
대권 배부)

문의 부산광역시의회(888-5262)

2007 장정윤순수무용공연

31일 수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로고현대무용
단 예술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
는 동아대학교 장정윤 교수의 순수현대무
용.

지난 해 '우주나무'로 부산무용제 대상과
전국무용제 은상을 수상한 장정윤은 1984
년부터 현재까지 20여회의 개인무용창작발
표회를 가져왔다.

이번 무대는 현대무용의 스토리텔링을 시
도한 '절영도'와 한국고유의 여성적 기질을
미니멀적 움직임의 정서로 해석한 '오래된

향아리' 두 작품을 올린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동아대학교(200-7822)

소극장

문화의달 기념 극단 에저포 특별공연
문지마 육남매

2일~5일 화~금요일 오후 7:30

병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소년소녀
가장이 된 억수이가 오빠와 동생을 돌보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려낸
'문지마 육남매'.

· 연출/최재민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 작품)

문의 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조희규 해금 독주회

26일 금요일 오후 7:30



제 8회 부산극악
대전 장원, 제 12
회 전국초등학교
학생음악경연대회
1등, 제 7회 전통
민속경연대회 대상
을 수상한 조희규
의 해금 독주회.

프로그램

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

김영재/적념

지영희류 해금산조

입장료 초대

문의 조웅섭(011-580-4199)

20세기 피아노음악의 거장, 건반위의 철학자

러셀 셔먼 피아노 독주회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17번 "폭풍"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3번 "열정"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0번

10.23(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음악
- 연극
- 무용
- 아동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늘원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서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극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 악

오페스 피스트- 축제의 시작

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권혜령 교수를 사사한 중견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피아노 솔로와 실내악의 축제.

· 출연/한은아, 허혜정, 배수정, 이진화, 권혜령, 권성은, 김화소, 박태희, 박정호

입장료 초대

문의 오페스 피스트(010-8893-7829)

테너 김성진 독창회-시월애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풍부한 성량과 밝은 미성, 화려한 테크닉의 소유자인 테너 김성진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의 대표적인 가곡집 '시인의 사랑' 전곡과 사랑을 주제로 한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임종환, 강희숙 바洛克-리코더 음악에의 초대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독일 예선국립음대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의 리코더 전문연주자인 임종환과 부산리코더 앙상블 리더,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지도교사로 있는 강희숙이 들려주는 리코더 앙상블 무대.

바로크시대를 대표하는 텔레만, 비발디, 바흐의 리코더음악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강희숙(016-562-6561)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2일 더블리드앙상블 특별초청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보에주자로 활동중인 류재환을 중심으로 양산시립관악단 오보에



주자 김미영,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오보에주자 박선영,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순수석 윤태준으로 구성된 더블리드앙상블 초청연주회.

■ 9일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엄남이 독창회.

· 특별출연/이재성(첼로)

· 피아노/백현주

■ 16일 백재진교수의 실내악 시리즈2

PBC화요음악회 50회 기념으로 마련되는 피아노 5중주의 밤.

· 연주/김일주(피아노), 홍기정(바이올린), 신나영(바이올린), 김미식(비올라), 도수경(첼로)

■ 23일 테너 김정호 제 4회 성가독창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C.S.M Roma 아카데미, A.I.D.M 아카데미(합창지휘), Rorezo Perosi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테너 김정호가 들려주는 성가의 밤.

■ 30일 블루클라시카 창단연주회

음악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아마추어 연주단체인 블루클라시카가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동요, 팝송 등을 들려준다.

· 지휘/김지호 · 반주/최혜련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바리톤 고봉수 독창회

4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동의대학교와 이태리 국립음악원 G.Nicolini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

리톤 고봉수 독창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M & M(010-9667-4842)

예원회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안원희 교수를 사사하고 국내외 대학원에서 피아노 전공 석, 박사과정을 마친 회원들로 구성된 예원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음악의 대표 작곡가인 모차르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와 라흐마니노프, 발라키레프, 메트너, 루토슬라프스키 등 러시아 작곡가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무료

문의 김인재(010-3626-0036)

한명희 인생 60년, 벗들과 함께

6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올해로 인생 60년을 맞는 부산대학교 한명희 교수가 음악적 동반자이자 친구인 연주자들과 함께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

· 피아노/제갈삼, 한동일, 신수정, 박종화
· 플룻/박성희 · 테너/장원상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가을 대담은소리 연주회

6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대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대담은소리'가 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대금 연주와 가곡, 경기민요, 창작국악곡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천조출연/박수영(가야금), 박은정(아쟁), 정지연(해금), 곽은진, 박애경(소리), 문금자(가곡), 송경업(신디사이저), 퓨전시나위 에타레

입장료 초대

문의 박진홍(017-540-0365)

KNN 부산국제영화제 OST 콘서트

7일 일요일 오후 7:30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야외상영장 특설무대



국내 최대 크기의 스크린을 통해 영화의 명 장면과 함께 펼쳐지는 부산국제영화제 OST 콘서트.

·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경성대학교 합창단

입장료 균일 10,000원(영화티켓 포함)

문의 KNN(1577-7600)

박필은 피아노 독주회

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윈스터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 과정,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다수 무

대에 서은 피아니스트 박필은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라단조 작품 31 제 2번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 춤곡

슈만/교향적 연습곡 작품 13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3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매주

■ 10일 바리톤 김길수 독창회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칸타빌레남성양상블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김길수 독창회.

· 피아노/이승윤 · 해설/양종모

■ 17일 정우영 · 윤태준 듀오리사이틀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정우영과 바순 수석 윤태준이 들려주는 듀오 무대.

■ 24일 아리에따 오카리나 제작발표회

오카리나 제작자 장규원이 만든 '아리에따 오카리나'로 연주하는 국내 최초의 오카리나 제작발표 연주회.

· 연주/홍용신, 김진덕, 부산오카리나앙상블, 아리에따 앙상블



Glovil
Art Hall
Recording Studio

가수 '비'가 녹음하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 수준 어쿠스틱 연주를 녹음을 부산에 있습니다.
_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 2007년 하반기 대관 신청 중
공연/녹음/음반제작/제작발표/마스터클래스/세미나



GloVil Art Hall

Recording Studio

607-06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9동 1243-21 기획팀
051+505+5995 | glovil@paran.com | www.glovil.org



· 피아노/박미향 · 클래식기타/고충진

■ 31일 신음회 작곡발표회

생소하면서도 어려운 현대음악을 스트로크 타악기양상블의 역동적인 연주와 재미나는 해설로 감상할 수 있는 신음회 작곡발표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가을에 듣는 정다운
우리가곡

13일 토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작곡가 최영섭, 이수인, 이안삼, 임금수의 가곡들로 꾸며지는 가을에 듣는 정다운 우리가곡.

프로그램

이안삼/산길, 가을이 와서야

이수인/오솔길에서, 별, 내맘의 강물

최영섭/금강산 사계 연가곡 '아 금강산'

임금수/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나무 등

· 출연/소프라노 강혜정, 박미경, 조혜령,

테너 이재욱, 강학운, 윤상훈, 부산

KBS어머니합창단(지휘/김명규), 아

가도스합창단(지휘/조홍래)

· 연주/뉴프라이임오케스트라(지휘/조홍래)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조홍래(011-565-7398)

제 7회 부산오카리나마을
정기연주회

13일 토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소극장

오카리나 동호회인 오카리나마을 부산모임이 마련하는 7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루브라나의 푸른하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중 '인생의 회전목마', 거위의 꿈, 트로트 메들리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김선희(010-5664-9389)

제 2회 부산팬플룻사랑
가을 정기연주회

14일 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방우종(017-558-8303)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무대에서 오카리나 선율을 들려준 팬플룻동호회인 부산팬플룻사랑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유니슨 콰르텟 정기연주회

1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슈베르트/죽음과 소녀
라벨/현악4중주 바장조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엄세희,
비올리니스트 김가
영, 첼리스트 유대
연으로 결성된 유
니슨 콰르텟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

양상블 클라시야와 함께하
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16일 화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양상블 클라시야가 매월 셋째주 화요일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현악4중주 제 1번 작품 11

모차르트/클라리넷협주곡 가장조 K.622

영화음악/스텝 주제곡 '엔터테인먼트', 쉘부리의 우산 등 수곡

· 마임/리용 아티스트

입장료 균일 20,000원(예매시 20% 할인)

문의 양상블 클라시야(506-6305)

바리톤 고정현 귀국 독창회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국 독창회.

· 특별출연/테너 김화정

· 피아노/홍지혜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ISOLIST(010-3038-7191)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이태리 파르마 A.Boito 국립음악원, San Felice 아카데미, Parma Lirica ORFEO 아카데미를 졸업한 바리톤 고정현 귀

김지연 귀국 비올라 독주회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프로그램

미요/4개의 인상 작품 238

클라크/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한양대학교와 영국왕립음악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양상블 클라시야 단원으로 활동중인 비올리니스트 김지연 귀국 독주회.

I Sognatori 'Delli speranzi'

동아 8인 음악회

18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이태리어로 '꿈꾸는 이들'이란 뜻으로,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성악전공자 8인으로 구성된 I Sognatori의 무대.

· 출연/강미래, 권승욱, 김원경, 김현, 손혜은, 이소연, 이정윤, 조현정

· 특별출연/양재우, 문태은

· 피아노/전형진

입장료 초대

문의 강미래(018-617-1125)

레이디스 필 앙상블 을속도 문화회관 초청 음악회

19일 금요일 오후 7:30
을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여성단원들로 결성,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과 여성적인 서정성이 잘 어우러진 품격있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 초청 음악회.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의 협연으로 가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연주곡을 들려준다.

- 단원/김은정, 최방주, 한아름, 양혜원(이상 바이올린), 최영화, 박소영(이상 비올라), 전수정(첼로), 임미형(더블 베이스), 이은정(피아노)
- 해설/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입장료 초대

문의 을속도문화회관(220-5321~2)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안단테 제 4회 연합콘서트

2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지역 통기타 동아리 출신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안단테'의 4번째 정기콘서트.

올림픽 체조 은메달리스트 여흥철, 아시

안개임 체조 금메달리스트 김동화, 가수 박기영이 우정출연한다.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강병일(011-889-2837)

2007 부산생활음악축제

22-23일 월-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지역 아마추어 연주단체들의 축제 2007 부산생활음악축제는 음악회의 틀을 깨고 쉬운 음악, 함께하는 음악, 참여하는 음악축제로 자리잡아 왔다.

- 22일 생활 속의 색소폰, 오카리나, 팬플룻/훅피리, 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 부산팬플룻사랑, 해운대여중어머니 합창단
- 23일 생활 속의 우리가라/신새벽풍물패, 대울림, 추임새 풀빛놀이패, 풍물패 버텨, 꿈마을 사물놀이패
- 특별출연/퓨전시나위 예타래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조익래(010-9878-7942)

해운대소리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

23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97년 창단 이후 KBS전국창작동요제, 부산아시아게임 개·폐막식, 부산국제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은 해운대소리합창단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편수영(011-830-0133)

Tone in Free 금관앙상블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7년 금관5중주으로 창단한 후 지난해 10중주로 확대 새면성한 톤 인 프리 금관앙상블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톤 인 프리 금관앙상블은 그동안 금관악기만의 화려한 음색과 화음으로 클래식에서부터 재즈까지 다양한 연주곡을 연주해왔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손영진(011-848-8995)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051-740-1700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미즈 챔버 콰이어 정기연주회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곡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노래하는 미즈 챔버콰이어 정기연주회.

· 지휘/김정환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 내한연주회

24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실내악단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는 고도의 숙련된 테크닉과 깊게 파고드는 연주로 세계무대에 서왔다.

■ 24일

· 지휘/로베르트 마레체크

· 협연/배수정, 김현정(피아노), 한송이(소프라노)

■ 25일

· 지휘/강만호

· 협연/차승희(소프라노), 최은경(바순), 김미경(피아노)

입장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B석 10,000원 · 학생단체 5,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621-6646)

CBMC 열린음악회

25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기독 실업인들로 구성된 부산총연합 CBMC합창단의 북한어린이 돕기 기금마련 열린음악회.

· 출연/부산총연합CBMC합창단(지휘/한남식), 테너 최화진, 테너 최승원, 바



리톤 우주호, 고신대학교 외국인유학생합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김주범(016-549-1156)

제 8회 간염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26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향연을 펼친다.

· 출연/강동석(바이올린), 파트릭 지그마노프스키(피아노), 장 루이 카페잘리(오보에), 엘렌 델라보(메조소프라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카렐 마크 시승)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영앤임섬(02-720-3933)

윤혜정 피아노 독주회

26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윤혜정(011-832-9527)

북유럽의 거성그리그와 시벨리우스 서거 100주년과 50주년을 맞아 북유럽과 서유럽을 가로지르는 19세기 낭만주의와 국민주의 음악의 대

뉴프라이모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26일 금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4월 울산YMCA 소속 연주단체로 창단된 이후 울산과 경남,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뉴프라이모오케스트라 4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임준오(상임지휘자)

입장료 R석 20,000원 ·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황성준(011-556-7308)

우리들의 두 번째 연주회

26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부산예교에 재학중인 음악전공자들이 마련하는 작은 음악회.

· 출연/강성주, 이진아, 허정현(이상 피아노), 김예진, 정보연(바이올린), 이정미(첼로), 박기영(비올라), 임은지, 이은영(국악)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해운대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27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2000년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 청소년 60여명으로 결성된 해운대구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정우영)의 7번째 정기연주회.

· 협연/석진아(첼로, 신도초등 6년)

입장료 무료

문의 장문선(011-489-0794)

최유경 제자 음악회

27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차세대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최유경 제자들이 들려주는 작은손 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김태경 클라리넷 독주회

28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음악 학부와 러시아 국립 글린카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을 라리넷콰이어 단원, 그린양상블 리더로 활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김태경 독주

회.

- 피아노/배미정
- 그린양상블/어정현(바이올린), 원아름(바이올린), 박미영(비올라), 광대희(첼로)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태경(016-588-7920)

테너 박인수와 음악여행

28일 일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폭넓은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테너 박인수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초대

문의 차재근(011-837-2297)

부산신포니에타 청소년 협주곡의 밤

2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신포니에타와 차세대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 부르흐/바이올린협주곡 사단조
- 슈베르트/비올라협주곡 다장조
-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 3번 등 수곡
- 출연/김요한(부산예중 1년), 김강하(부산예중 2년), 김상훈(부산예중 3년), 박진영(부산예고 1년), 김정원, 이소연, 황영은(이상 부산예고 2년)

입장료 초대

문의 김영희(011-9519-0448)

해운대리코더양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30일 화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0년 부산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리코더양상블인 해운대리코더양상블의 4번째 정기연주회.

- 음악감독/하야자키 야스노리

입장료 무료

문의 장숙혜(011-862-6675)

연극

2007 가마골소극장 고정레퍼토리 서툰사람들

9월 21일(금)-10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가마골소극장



1997년 가마골소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변함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서툰사람들'은 초보 독극과 어설픈 집주인의 하

룻밤 꿈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의 모순과 비극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염순식, 한상민, 김지현, 최윤미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를 색다른 상상력으로 새롭게 각색, 배우의 목소리와 신체의 움직임만으로 표현한 독특한 형식의 아카펠라 뮤지컬.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321~2)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유/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아시아아보병원 · 암센터 전문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의료법인 대안여주교장로회 중외 의료법인
 부산광역시 서구 알람동 34번지 602-702

대표전화 (051) 990-8114
 진료예약 (051) 990-9900
 응급의료센터 (051) 990-119
 알레르기진료센터 (051) 990-5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8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8155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오! 개그스타 콘서트

7일 일요일 오후 3:00, 6:30

KBS부산홀



사랑의 카운슬러, 갈기도, 대화가 필요해, 타짱 등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를 재구성, 최고의 웃음을 선사할 오! 개그스타 콘서트.

-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 문의** (주)AN시티(1644-4484)

교사극단 한세별 제 48회 정기공연 가판대

8일-12일 월-금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길거리 가판대를 오가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사건을 통해 현대인의 일그러진 욕망을 보여주는 세태풍자극.

- 작/심상교 · 연출/황인업
- 출연/주용욱, 광삼국, 최영용, 이태윤, 신장우, 이준현, 윤미숙, 김지연
-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이효동(019-443-7502)



극단 아센 제 16회 정기공연
로망스2
10월 10일 (수)-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6:00(월요일, 10/31일 공연없음)

소극장 미리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철부지 엄마와 서른이 다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딸이 펼치는 일상을 통해 두 모녀의 삶과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작품.

- 연출/호민
- 출연/남현주, 김희지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소극장 미리내(504-2544)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부산초청공연

인도 소파남 공연예술연구원 마야
11일-12일 목-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화려한 인도 전통의상과 춤,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상징적 몸짓이 하나되는 인도 소파남 공연예술연구원의 궁전연희극 '마야'.

- 연출/카발람 나라야나 파니카르
-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의** 시민회관(630-5200)

극단 윤 엄마의 향기

11일(목)-25일(목)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30, 7:30
경성대 예노소극장



남편과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와 그런 엄마의 잔소리에 벗어나고 싶어 하는 딸 사이의 서투른 사랑이 딸의 회상을 통해 그려진다.

- 연출/이종목
- 출연/김미경, 김윤영, 권기영
-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 문의** 만세픽처스(417-1473)

코메디 클럽에서 올라

10월 13일(토)-11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인생의 아픔을 물어둔 채 사람을 웃겨야만 살 수 있는 삼류 코메디언 조덕배의 인생을 통해 눈물나는 감동의 코메디를 보여준다.

- 작/김태수 · 연출/김만중
- 출연/김진욱, 어주선, 권철, 구민주 외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뮤지컬 펌프보이즈

19일 금요일 오후 8:00, 20일 토요일 오후 4:00, 8:00, 21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동아대학교 석당홀



고속도로 주유소와 작은 식당을 배경으로 펌프보이(주유소 직원)와 다이넷(식당 웨이트레스)을 등장시켜 젊은이들의 꿈과 우정, 사랑과

애환을 유쾌하게 그려낸 뮤지컬.

- 연출, 번역/이지나
- 출연/송웅진, 조정석, 이영미, 전혜선, 이준, 박웅, 서재혁, 박변계 & 흥록기
-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주)AN시티(1644-4484)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19일-20일 금-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춘향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는 우리의 고전 춘향전과 심청전을 새롭게 해석,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창작뮤지컬.

- 작/박새봄
- 연출/최성신 · 작, 편곡/원일
- 출연/강윤정, 장덕수, 고승수, 김태문 외
- 입장료** S석 25,000원 · A석 20,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댄스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20일-21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주인공 세 명의 탄생과 성장기를 힙합,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 댄스 등 춤으로 표현한 댄스뮤지컬.

-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5,000원 할인)
- 문의** KNN(1577-7600)

배.관.공 창작극 **사리극3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10월 25일(목)-11월 1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4:30
열린소극장

일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최초의 연극인 '귀향-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는 해방이 되고 귀향을 앞둔 세 명의 위안부 여인이 지난 시간의 상처때문에 신음하면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을 치밀한 심리



묘사로 그려낸 작품이다.
· 원작/극단 한강 공동창작
· 연출/유재명
· 출연/진선미, 손남숙, 백선우, 배진만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예매시 30% 할인)
-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극단 누리에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장군슈퍼**

10월 26일(금)-11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장군슈퍼에 모여 드는 각기 다른 인물을 통해 소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김한길

- 연출/강성우
- 출연/김학준, 최경경, 황정미, 최성희 외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극단 누리에(621-3573)

브로드웨이 코미디 뮤지컬 **년센스 크래커**

27일-28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최고의 코미디 뮤지컬로 손꼽히는 '년센스'의 네 번째 속편으로 앤젤수녀원의 수녀들이 케이블TV로부터 의뢰받은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대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코믹 헤프닝을 그렸다.

- 출연/심현선, 조갑경, 김숙, 나정윤, 김보라, 장윤진, 김두명, 김현석
-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문의** 아우라기획(625-0866)

무용

임현미 현대춤 **Beyond the Cliff**

4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트러스트 현대무용단을 창단한 임현미는 이번 무대에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부딪히는 절망의 순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유와 정화의 과정을 춤으로 보여준다.

-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원향미(016-756-1962)

부산시립무용단 **콩쥐 vs 팔쥐**

10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지역과 함께 더 높은 가치창조를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부산은행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전래동화 '공쥐 팔쥐'를 딸이 아닌 아들로 등장시켜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 안무/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입장료 VIP석 20,000원 · R석 10,000원
초중고생 5,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2)

아 동 극

영어로 즐기는 발레 피터와 늑대
28일 일요일 오후 4:00, 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프로코피에프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를 발레로 재구성한 신정희 발레단의 어린이를 위한 발레극으로, 사실감 있는 영상과 함께 작품에 대한 해설을 영어로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7일 일요일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마음씨 착한 소녀 벨과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된 왕자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그린 가족뮤지컬.

- 출연/최윤주, 안정민, 김은주, 전민규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제 18회 색동가을소리 사랑나누기

정기공연 마법의 동물원
25일-26일 목-금요일 오전
10:20, 11:40, 27일-28일 토-일
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꿈 속 마법의 동물원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 기획/박정숙 · 연출/강미정
- 출연/임영천, 이소영, 박순혜, 양윤주, 정은희, 김미정, 김명주, 김연정

입장료 균일 12,000원(단체 4,000원)

문의 (사)부산색동어머니회(809-7658)

가족마당극 **공쥐와 팔쥐엄마**

2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8일 일요일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전래동화 '공쥐팔쥐'를 구전동요와 국악연주를 통해 가족마당극으로 새롭게 각색한 '공쥐와 팔쥐엄마'.

- 연출/박재운
- 출연/문석희, 박상대, 김종혁, 최연희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비보이동산의 **백설공주**

27일 토요일 오후 2:00, 4:00, 2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화 '백설공주'와 비보이를 접목시킨 가족뮤지컬.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문의 극단 한울(1544-1718)

콘서트

25주년 기념 콘서트

박강성 眞磬
6일 토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사)부산문화(633-8990)

행사

제 65회 **시울림 시낭송회**

10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관 문화사랑방

문학평론가 황선용과 함께하는 '김신용 시인의 시세계 탐색'으로 마련되는 제 65회 시울림 시낭송회.

입장료 무료

문의 김예강(019-516-1867)

2007 부산국제건축문화제

10월 10일(수)-10월 14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888-4760)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범어사 개산 **선문화축제 문없는 문을 열다**

12일(금)-14일(일) 오전 10:00
범어사

입장료 무료

문의 범어사(508-3023, 3034)

2007 문화의 달 **천지인, 생명과 평화의 숲터**

10월 19일(금)-10월 21일(일)
부산문화회관, 광안리해수욕장 외 부산 전역

다섯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한민족 예술교류행사를 비롯 제 3회 부산불꽃축제, 전통문화한마당, 릴레이콘서트, 찾아가는 예술단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입장료 2007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문의 (888-3394)

전시

변대용 개인전 **등상이몽-보색**
9월 8일(토)-11월 24일(토)
김스아트필드

· 관람일/매주 토요일 개관

문의 김스아트필드(517-6800)

KBS부산총국 개국 72주년 기념 **김정명초대전 시각 속의 뜬구름**

9월 28일(금)-10월 5일(금)
KBS부산갤러리

문의 KBS부산갤러리(620-7369)

베르나르 브 네 전

9월 20일(목)-11월 1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 로비 · 야외공원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이경홍 사진전

10월 1일(월)-10월 31일(수)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티나김 '엘리스의 외출'

10월 1일(월)-10월 14일(일)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김봉석 전각전-장서인(藏書印)

10월 2일(화)-10월 7일(일)
영광도서 갤러리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3인 초대전

-김정숙 정차석 한중선
10월 4일(목)-10월 12일(금)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부산박물관 2007 특별전시회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

10월 5일(금)-12월 16일(일)
부산박물관

문의 부산박물관(624-6341~4)

김도웅의 연극이야기Ⅱ '나는 당신들의 필름이다'

10월 6일(토)-20일(토) 오후
2:00~오후 8:00 열린소극장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대에 올려졌던 공연사진 100여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는 춤과 퍼포먼스, 마임공연 등이 함께 펼쳐진다.

입장료 무료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금정예술제

10월 8일(월)-10월 14일(일)
금정문화회관 제 1전시실

문의 금정구청(519-4061)

PPLC(Pusan Photo Love Club) 제 5회 전시회 '나'

10월 9일(화)-10월 14일(일)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김영주 초대전

10월 15일(월)-10월 24일(수)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최혜경 개인전 '결혼한다는 것은'

10월 16일(화)-10월 21일(일)
영광도서 갤러리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도예작가 신상호 회고전

2007년 10월 16일(화)-2008년
3월 30일(일)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문의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055-340-7000)

경일대학교 순수사진 전공 그룹전 제 1부-삶으로부터

10월 23일(화)-10월 31일(수)
영광도서 갤러리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이태우 초대전 '영원의 노래'

10월 23일(화)-11월 11일(일)
갤러리 예가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노용성展

10월 25일(목)-10월 31일(수)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갤러리
예가



티나 김
"엘리스의 외출"

2007.10.1 (월) - 10.14 (일)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센터 문의 : 갤러리 예가 (T.624-0933) www.yrhga.co.kr



이태우 초대전

... 영원의 노래 ...

2007.10.23(화)~11.11(일)



Recommended Performances in October

Well-Being Concert 11:00 A.M. TALK-CONCERT by Hong-Lyeol Lee & Ho-Sung Park

5th(FRI) 11:00 a.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Witty comedian, Hong-Lyeol Lee will host the Well-Being Concert with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 Conductor/ Ho-Sung Park

- Talk Show host/ Hong-Lyel Lee
- Talk Show guests/ Kyung-Hye Lee, Bong-Jin Jeon
- Gyeongseodo Folksongs/Hye-Ran Kim
- Kayagum/Eun-A Kwak

Ticket: All seats for 15,000Won

For more information: 607-611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Men Version 'Kongjui vs Patchui'

10th(WED) 7:30 p.m.

Haeundae Culture Hall Main Theater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is well-known for Korean traditional Fables based Madang nori (Yard Play). This time the team performs new version of Kongjui vs Patchui! Kongjui and Patchui are not daughters but sons! Come and enjoy the new version.

- Dance Director/ Ki-Tae Hong

Ticket: VIP-20,000Won, R-10,000Won, Students-5,000Won

For more information: 749 - 7652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33rd Subscription Concerts

12th(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Worldclass conductor, Sung Kwak will conduct the concert and talented pianist Hae-Jung Kim will join the Orchestra. Kim debuted at the Lincon Center when she was 14 years old, since then she played overseas stages of Asia, Europe and US.

Program

S.Rachmaninov/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G.Holst/ The Planets

- Conductor/ Sung Kwak • Piano/ Hae-Jung Kim

Ticket: R-10,000Won, S-7,000Won, A-5,000Won

For more details: 607-6101~4

Busan Symphonic Orchestra The 21st Regular Concert

22nd(MON)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Concertmaster of The Philadelphia Philharmonic Orchestra since 1999, David Kim will perform at the invited concert as a featured violinist.

Program

Tschaikowsky/Violin Concert in D Major Op.35

Tschaikowsky/Symphony No 4 in f minor Op.36 etc.

- Conductor/ Choong-Keun Oh • Violin/ David Kim

Ticket: VIP 50,000Won, R-30,000Won, S-20,000Won, A-10,000Won

For more details: 620 -4917-8

Russell Sherman Piano Recital

23rd(TUE) October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With the creative interpretation and charisma, Pianist Russell Sherman, NEC's Distinguished Artist-in-Residence, will revisit the Beethoven Sonatas on his Busan Cultural Center recital.

Program

L.v.Beethoven/ Piano Sonata No.17 'Tempest'

L.v.Beethoven/Piano Sonata No.30 in E Major,OP.109

C. Debussy /Prelude a l'apres-midi d'un faune (Duo) etc.

Ticket: R-60,000Won, S-50,000Won, A-40,000Won and B-30,000Won

For more details: 747-1536

Opening Concert – 2007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Korea Fantasy In Busan'

31st(WED)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is to celebrate the eve of 2007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Ahn Eak Tai's most representative work, Symphonic Fantasy Korea, Beethoven's Choral Ode to Joy, and Jang Sa Ik's beautiful songs will impress you at the opening concert.

Program

Ahn Eak Tai/ Symphonic Fantasia Korea

Beethoven/ Symphony No.9 D minor Op.125 Choral mov.4 Ode to Joy'

Sung Whan Choi/ Arirang Fantasy etc.

- Orchestra/ Busan Symphonic Orchestra(Conductor/ Choong-Keun Oh)

- Chorus/ World United Choral

- Solist/ Jung-Won Park(Soprano), Hyeon-Soo Ryu(Mezzo Soprano), Eun-Min Lee(Tenor), Dae-yong Park (Baritone)

- Special Guest/ Jang Sa Ik (Korean traditional folk music)

Ticket: 1st Floor-50,000Won, 2nd Floor-30,000Won

For more details: 1577-7600 (www.knn.co.kr)

Translated by Hui-Sun, Chung

정기회원소식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10/5(금) 11:00	박호성과 이흥렬이 만나는 11시 토크 콘서트	균일 15,000원	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10/22(월) 19:30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1회 정기연주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10%	BSO(620-4917)
	10/23(화) 19:30	러셀서먼 피아노 독주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10%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7-1536)
	10/31(수) 19:30	2007부산국제합창제 전야대음악회 코리아환타지 인 부산	1층 50,000원 · 2층 30,000원	10%	KNN (1577-7600)
시민회관 대극장	10/20(토) - 10/21(일) 14:00, 18:00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5,000원 할인	KNN (1577-7600)
KBS부산홀	10/7(일) 15:00, 18:30	오! 개그콘서트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주)ANS이티 (1644-4484)
동아대학교 석당홀	10/19(금)20:00, 10/20(토)16:00, 20:00, 10/21(일) 15:00, 19:00	뮤지컬 펄프보이즈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주)ANS이티 (1644-4484)
	11/3(토) 16:00, 20:00 11/4(토) 15:00, 19:00	주주총회 콘서트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가마골소극장	9/21(금)-10/21(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서툰사람들	일반 20,000원 학생 1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타리 332-7339)

자연과 사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하늘채" 가 있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순수한 자연환경과 유엔평화공원이 내집 정원인 곳
멋진 광안대교 아랫까지 당신이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문의/ 051)703-1003

하늘채

코오롱건설(주)

오페라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악극을 통해 오페라의 혁명을 이룩한 바그너(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르노아르가 그린 바그너)

베버(C. M. V. Weber, 1786~1826)에 의해서 독일의 오페라는 낭만주의적 시대로 옮겨간다. 그의 대표작 <마탄의 사수>(1821년작)는 '낭만주의 관현악의 무기'고 라는 평을 받았고 독일 낭만파 오페라의 효시라는 영예를 받았다. 보헤미아의 숲에 사는 사냥꾼들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이 오페라는 민족적 소재, 노래와 무용의 예술화(민속으로부터), 자연 감정의 표현, 오페라의 종합예술화에서의 성공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파이지엘로(G. Paisiello, 1740~1816), 치마로자(D. Cimarosa, 1749~1801) 등 나폴리 악파의 작곡가들이 오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19세기엔 루치니(Rossini, 세빌리아의 이발사), 도니제티(Donizetti, 사랑의 묘약, 람페르무어의 루치아), 벨리니(Bellini, 몽유병 여인)등이 등장하여 현대로 계승되는 이탈리아 오페라 양식을 완성시키는 한편, 오페라 가수들에겐 고도의 빨간토를 요구하는 오페라의 성악적

기술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들 세 작곡가는 명실공히 이탈리아 오페라의 황금시대를 예비한 초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전반부터 그랜드오페라 양식이 왕성하게 발전했는데 예로부터 춤을 각별하게 즐겨왔던 그들의 전통이 오페라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페라에도 반드시 춤 장면을 넣었고 그렇다보니 오페라는 어쩔 수 없이 대형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어베어(G. Meyerbeer, 1791~1864)가 눈부신 활동을 했으며(대표작/아프리카의 여인), 오페라 부파에선 프랑스의 독특한 스타일로 평가되는 오페라 꼬막의 부엘듀(F. A. Boieldieu, 1775~1834), 오베르(Auber, 1782~1871) 등이 이 분야의 작곡가로 활약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로르칭(A. Lortzing, 1801~1851), 니콜라이(D. Nicolai, 1810~1849), 플로투우(F. Flotow, 1812~1883) 등 낭만파 작곡가들이 활약했고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바그너(R. Wagner, 1813~1883)는 악극(Music Drama)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개척하고 오페라 역사에 혁명을 이룩했다. 그는 종래의 번호 오페라를 배제하고 무한선율을 사용하여 음악의 흐름을 일관시키고 시도동기를 사용하여 음악으로 극의 발전을 돕는 독특한 기법을 창안하여 후진은 물론 동시대의 작곡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방황하는 화랑인> <탄호이저> <로엔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데> <뮌헨베르크의 명가수> <니벨룽겐의 가락지> <파르지팔> 등 일련의 작품들은 오페라 제3혁명의 빛나는 유산들이다.

이탈리아에선 바그너와 같은 해에 태어난 베르디(G. Verdi, 1813~1901)에 의해 역시 눈부신 오페라의 황금시대를 만들게 된다. 베르디 역시 극적인 진실을 추구하고 공허한 프리마 돈나 주의에서 사실적인 표현과 설득력이 강한 바리톤에 중심을 두어 연극과 음악의 합일을 지향했다.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등의 오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것이다.



샤샤&쇼나 - 사이렌 (Siren)

켈틱우먼, 라일랜드 엔젤에 이어 EMI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미모의 팝페라 여성듀엣 '샤샤 & 쇼나'의 데뷔앨범이다.

'Per Te', 'I Know It's Real' 등 린다 론스태드, 제임스 테일러 등의 앨범작업으로 '그래미상'을 수차례 수상한 명프로듀서 피터 애셔의 참여로 더욱 빛나는 천상의 하모니이다.

수록곡/Fade Out, PerTe/For You, I know it's Real, Dust In the Wind 등 12곡



슬픈 선율의 마술사, <마이클 호페> 슈퍼 베스트 앨범 슬픈 풍경

'SOLACE(위안)'란 음반으로 그래미상 후보에도 올랐던 영국 뉴 에이지 음악의 거장 마이클 호페.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오늘날 뉴 에이지 음악 장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음악가 중의 한 사람이다. 마이클 호페는 영화 음악으로도 이름을 떨쳤는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널리 알려진 진 핵크먼 열연의 '미스언더스투드(Misunderstood)'가 미국의 주요영화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오스카상 단편영화부문의 후보로도 올랐었던 '바람의 눈

(Eyes of the Wind)'에서 놀라운 배경음악으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도 바로 마이클 호페이다.

유명한 'The Yearning(그리움)', 'The Lover(연인)'이란 음반 외에도 'Afterglow(저녁놀)'란 음반은 인디 2000 컨벤션의 베스트 뉴 에이지 앨범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물론 그의 음반들은 지금도 새로 나오기만 하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미 여러 개의 골드 혹은 플래티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베스트앨범에는 그의 애잔한 명곡들이 모두 이 한 장에 들어있다. 특별 보너스 트랙으로 아메리카, 하와이의 장엄한 풍광을 담은 '장엄한 땅(This Majestic Land)'도 마련했다.



사라 장 '비발디 사계'

우리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장영주)이 연주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명곡, 비발디<사계>. 사라 장이 15년 만에 출시한 가장 파울러한 클래식 앨범이자, 첫 번째 바로크 앨범이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의 18번째 음반이며,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녹음한 사라 장의 첫 번째 리더(Leader) 작업이다.

우리나라 팬들을 위해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발매되었으며, 보너스 트랙으로 비발디 '조화의 영감' 중 협주곡 6번 1악장이 특별수록되어 있다. 사라장은 계절의 변화가 둔감한 현대인들에게 21세기 사계의 새로운 전형을 들려준다.



예프게니 키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 & 슈만 피아노 협주곡

러시아 출신의 우리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이 소니 BMG 레이블에서 EMI로 음반사를 옮기고 나온 첫 데뷔 앨범이다.

피아노 신동에서 거장의 반열에 오른 키신의 힘있는 타건과 화려한 연주가 런던 교향악단과 콜린 데이비스의 서포트 아래 강렬한 음악적 감동을 남기는 2007년 하반기 클래식 음반 최고의 화제작이다. 12살때 모스크바 필하모닉과 녹음한 쇼팽피아노 전주곡 전집을 데뷔음반으로 낸 키신은 16세때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 협연했으며, 1988년에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에 출연했다.

18세때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필과 협연하면서 미국무대에 데뷔한 키신은 카네기홀 개관 100주년 시즌을 독주회로 열었다. 1997년에는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런던 프롬스 축제에서 축제사상 처음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키신은 지금까지 40여장의 음반을 냈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센세이션전 : 세상을 뒤흔든 천재들

이명옥 지음 / 랜덤하우스 / 255p / 12,800원



스승 로댕과의 비극적인 사랑으로 아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천재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 인간의 본능을 해방한 에로티시즘의 대가 구스타프 클림트, 혁명적 발상으로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미술계의 이단아 마르셀 뒤샹 등 편견과 관습에 맞서고 투쟁하면서 'My Way'를 실천한 천재 예술가들 13명의 삶과 예술을 담은 책. 우리는 '상식'과 이 시대의 '관념'이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또는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 틀 안에서 사고하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대인들의 취향과 정서,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예술혼을 가진 천재들은 생전 보지도 못했고 미처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잠든 의식을 뒤흔들어 깨우고 전 사회에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대중 의식의 흐름과 관념의 물길을 바꾸어놓았는데, 그 흐름이 바뀌는 지점마다 기념비처럼 서 있는 가장 센세이션얼한 작품과 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을 잊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창조력을 가진 천재들의 <센세이션전展>을 권한다. 동서고금의 문학, 철학, 미학, 영화, 미술, 음악을 아우르는 이 책은 비단 미술 관련 서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인문교양서이다.

글로벌 광대 김덕수 신명으로 세상을 두드리다

김덕수 지음 / 김영사 / 256p / 12,000원



다섯 살 한창 엄마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남사당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우연히 잡은 장구채의 유혹에 빠진 김덕수. 당대 최고의 선배 광대들에게 전통악기 연주법과 예술혼의 모든 것을 전수 받는 영광을 누린 그는 1959년에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장구를 귀신같이 친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때 그의 나이 일곱 살. 그리고 지금까지 50년간 한 우물 예인인생을 걸어온 것이다. 1970년대 '데모의 앞잡이'라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열린 공간에서의 풍물연주를 금지하는 무지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는 소극장에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78년 '공간사랑'에서 '팽과리, 징, 장구, 북'만으로 연주회를 개최, 처음으로 '사물놀이'를 선보인다. 사물놀이 창단 후,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영국 등 세계를 순회하며 연간 150회, 총 5,000회의 공연을 펼쳐 왔다. 세계 문화예술계의 호평을 받으며 '문화선구자의 주역'으로 떠오른 그는 최근 한국문화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김덕수의 50년 인생철학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성공전략, 신명나는 삶을 살기 위한 생생한 방법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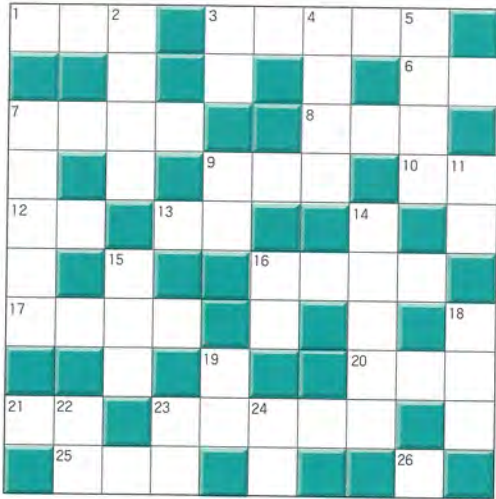
영화, 감독을 말하다

지승호 지음 / 수다 / 415p / 16,000원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의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 씨가 영화감독들을 만났다. 공포물이라는 장르를 통해 사춘기 소녀들의 심리를 포착해 낸 <여고괴담 2>와 국내외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하며 그 진가를 인정받았던 <가족의 탄생>의 김태용 감독, 노인의 성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룬 <죽어도 좋아>,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한 <너는 내 운명>,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그놈 목소리>의 박진표 감독,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의 영화들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박찬욱 감독, 1억 원의 저예산으로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인디영화 <후회하지 않아>의 이송희일 감독, <오래된 정원>, <그때 그 사람들>, <바람난 가족>의 연출을 통해 특정 시기의 사회와 그 단면을 아주 상세히 재연해 내면서 당대의 선택에 날카로운 메스를 가해 위선을 고발한 임상수 감독, <범죄의 재구성>, <타짜>에서 빠른 전개와 인간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관객에게 유쾌한 두뇌 게임을 제안하는 최동훈 감독이 그들이다.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가로문제

- 10월 4일부터 열리는 제 1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평 사오강의 전쟁 휴먼드라마.
- 음악웹진 '이즘(ZM)'이 최근 대중음악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90년 이후, 우리를 흔든 노랫말 TOP 30'에서 1위를 차지한 김광석의 노래.
- '씨뿌리는 사람', '이삭줍기', '민중' 등 농민생활을 즐겨 그렸던 프랑스의 화가.
- 1971년 캐나다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환경보호 단체. 본래는 프랑스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해 발족했으나 그 후 원자력발전 반대, 방사선 폐기물 해양투기 저지운동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산과 들에 지라는 여러해살이풀. 한방에서는 뿌리줄기를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하며 차음료로 많이 마신다.
- 현재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세계 3대 석유선물 시장의 하나. 나라명은 아랍어로 '메뚜기'.
- 조선 시대,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서양 타악기의 하나. 짙은 원통형의 금속 동체의 양쪽에 가죽을 팽팽하게 대고, 그 주변에는 가죽을 죄는 나사못의 장치가 있으며, 두 개 또는 한 개의 채로 친다.
- 15일.

16. 9월 6일 7세의 나이로 타계한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테너로 불리었다.
17. 특유의 영암법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함께 17세기 유럽 회화사상 최대의 화가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의 화가. 대표적으로 100여점의 자화상과 '톨프박사의 해부학강의', '엠마오의 그리스도', '검은 모자를 쓴 젊은이' 등이 있다.
20.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OOO로 구성된 그레이트 브리튼섬과 아일랜드섬 북쪽의 북대서양아일랜드로 이루어져있다.
21. 9월 9일 막을 내린 제 64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작품상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감독으로, 2005년 '브로큰백마운틴'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했다.
23. 에드거 앨런 포우의 단편소설. 병적인 범죄심리와 공포분위기를 이 동물로 통해 표현했다.
25.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
26. 바다로 뻗어 나온 모양을 한 곳. 장산오, 간절오.

세로문제

2.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3. 오페라, 오라토리오, 발레, 모음곡 등의 첫 부분에서 연주되어 후속부로의 도입 역할을 하는 기악곡.
4. 2000년 1월 1일 처음 태어난 산생아를 지칭한 말.
5. 성덕대왕신종. 국보 제 29호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최대의 종.
7. 원래는 카드놀이인 브리지게임에서 패 13장 전부를 따는 '압승'을 뜻하는 용어에서 나온 말로, 골프와 테니스의 경우 한 해에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것을 말하며 야구에서는 만루홈런을 가리킨다.
9.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잠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11. 비둑에서 생각해내기 힘든 좋은 수.
14. 미국 뉴욕 시의 맨해튼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길. 타임스 스퀘어에서부터 클림버스 서울까지 극장가가 형성되어 있다.
15.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지키는 원칙.
16. 몽골인들의 이동식 천막집.
18.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이슬람왕조 이름. 한국인 23명이 피랍된 아프가니스탄의 주 이름과 같다.
19. 현실 참여의식과 역사의식을 시를 통하여 형성화한 현대 시인. 대표작으로 '피안감성', '만인보' '백두산' 등이 있다.
22. 출가한 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고 한곳에 머무르면서 수행하는 제도.
23. 죽도(竹刀)로 상대편을 치거나 찔러서 얻은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운동 경기.
24. 수중 생활에 적응된 포유류로 뿔다리는 퇴화하였고 앞다리는 지느러미 모양으로 변하였다. 전 세계에 100여 종이 있으나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지번호 정답

부	산	예	술	제	해	계	모	니
에		대	초					벨
노	신		악	의	꽃			풍
스	마	당	극		봉		간	
아	니	리		봉	래	산		의
이	양	코	르		탈	레	반	
레	투	와		입	춤		지	
스	시	내	마	천	국		시	트
수	트				수	심		필

- **큰집 식사관**
이흥수(연제구 거제1동)
김성미(부산진구 연제동)
이후용(사상구 덕포2동)
전정민(사하구 장림동)
황득규(동래구 낙민동)
- **신마루 굽터**
정인태(부산진구 당감동)
우수중(해운대구 좌4동)
김서영(사하구 감천1동)
김미소(북구 만덕동)
김은정(해운대구 좌1동)
- **가마골 소극장 초대관**
김성희(해운대구 반여동)
김은화(남구 대연1동)
김춘화(동구 수정동)
임호순(연제구 연산5동)
정혜원(서구 압남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관**
오세찬(동래구 은천3동)
성영화(동구 수정 2동)
이진화(금정구 부곡2동)
송재욱(연제구 거제3동)
이강희(해운대구 우1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산마루 굽터

· 짬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UN로터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된 윤이상 민족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초연무대 성황리에 마쳐



윤이상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윤이상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여사가 40년만에 고국을 방문했다.

윤이상 탄생 90주년을 기념한 윤이상 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9월 20일 부산에서 공연된 윤이상 민족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산광역시와 윤이상 평화재단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지휘자 곽승의 지휘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한울림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등 240여명의 연주자들이 출연, 1500여명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한국 초연무대를 위해 윤이상 선생의 부인인 이수자 여사가 40년 만에 고향 부산을 방문해 연주회에 앞서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으로 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이날 연주회에는 이수자 여사 외 윤이상 선생의 장녀 윤정, 윤이상 평화재단 박재규 이사장과 송기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백기완 시인, 윤이상 평화재단 이사 조선우, 신계륜, 유영래, 한울림합창단 차재근 단장 등이 참석했다.

1부 서주와 추상 연주가 끝난 뒤에는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11명 시인 중 한 사람인 백기완 선생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시를 직접 낭송하기도 했다.



부산시립예술단 중국, 베트남에서 초청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중국광파민족악단 초청으로 오는 10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세계적 수준의 콘서트홀인 북경음악청에서 열리는 이번 초청공연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흥겨우면서도 아름다운 국악 창작관현악으로 중국 현지인들과 만난다. 중국광파민족악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인 팡가봉의 지휘로 열리는 1부에서는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이상규 곡), 이호를 위한 협주곡 '향' (박범훈 곡), 창작관현악 '가을의 기억' (백규진 곡)을 연주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2부에서는 창작관현악 '아름다운 인생' (김선제 곡), 창을 위한 관현악 '바람아 완산칠봉 바람아' (백성기 곡), 사물놀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신모듬' (박범훈 곡)을 연주한다.



팡가봉

박호성

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1월 10일 부산의 자매도시인 베트남 호치민시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부산의 날' 공연에 참가한다. 2004년 부산시립무용단에 이어 참가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사물놀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신모듬' 등 흥겨운 우리국악과 베트남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립합창단은 10월 21일 중국 청도시에서 열리는 제 1회 청도국제합창제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축하공연을 갖는다. 북경올림픽을 기념해 개최되는 청도국제합창제는 전 세계 15개국 30개 단체가 참가한다. 이번 청도국제합창제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은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도시 부산을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줄 예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개최

- 10월 4일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10월 5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0월 4일 오후 7시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열리는 2007 캠퍼스 음악회에 이어 5일 저녁 7시 30분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을 위한 초청음악회를 갖는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을 비롯 라벨의 '치간느', 슈트라우스의 '인네 풀카 작품 117', 앤더슨의 '트럼페터의 자장가', '나팔수의 휴일',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등 가을밤 서정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특히 4일 캠퍼스 음악회에서는 뮤지컬 가수 최정원이 출연, 명성황후 OST 중 '나 가거든', 팝송 'Greatest Love of All' 등을 들려주며, 5일 을숙도문화회관 초청공연에서는 '이 간판띠' 남성중창단이 출연해 팝송메들리와 우리민요 '경복궁 타령'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극단 단원들과 함께 한 늦은 여름여행 - 남해 해오름 예술촌, 독일 마을, 문항갯벌 -



여행은 언제나 행복한 설렘을 준다. 9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일행들이 찾은 곳은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태풍 위니의 북상으로 출발에 앞서 다소 긴장 했지만 부산시립극단과 함께 동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순간 회원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 '남해'로 떠난다는 기대감과 무대에서만 만나던 시립극단 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은 생각만으로도 즐겁다.



8시,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해 3시간 남짓 달렸을까.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창선, 삼천포대교를 지나자 창박 너머 남해의 청정 바다와 가을들녘이 한쪽의 수채화처럼 펼쳐진다.



일행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남해 해오름예술촌. 폐교가 된 물건초등학교를 아름다운 문화휴식 공간으로 꾸민 남해 해오름예술촌은 도시 생활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준다.

해오름 예술촌 야외 공연장에서 10월 25일 공연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립극단의 '미스터 웡 vs 미스터 웡' 쇼케이스 무대를 가졌다. 우리 고전 웡고집을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퓨전뮤지컬로 만든 '미스터 웡 vs 미스터 웡'은 육십장이 웡고집의 복제인간이 등장한다.

“예 고집아, 배가 등거죽에 붙었다. 옛 저녁 주먹밥 던져준 것 말고는 웡 종일 굶었어.”

“굶세요. 그게 뭐 장수의 비결이라 하나 뭐나.”

웡고집 이혁우 씨와 웡고집 어머니 정행심 씨가 선보인 무대에서 회원들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쇼케이스 무대가 끝나고 독일마을을 지나 남해 문항리 갯벌 체험마을로 향했다. 부녀회에서 차려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물이 빠지는 것을 기다리며 부산시립극단 황창기, 이혁우 단원이 회원들에게 즉석 무대를 선물했다. 회원들의 우산이 지팡이 소품으로 변하고 어린이 참가자가 나무가 되어 즉석에서 펼쳐진 공연에 회원들은 평생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받았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11월 9일(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및 단감따기 체험

세계 최초의 건축 도자 전문미술관인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과 농촌의 정취가 살아있는 김해 무척산으로 떠나는 늦가을 여행.

- ▷ 08:40 부산문화회관 집결 ▷ 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도착, 관람
- ▷ 12:30 무척산 관광농원 도착
- ▷ 13:00 떡메치기 및 단감 수확 체험
- ▷ 16:00 부산문화회관 도착



▶ 12월 14일 금요일 경주 다시보기!

신라 유적의 보고 경주박물관에서 옛 선조들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해누리 역사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본다.

- ▷ 08:40 부산 문화회관 집결 ▷ 09:00 부산 문화회관 출발
- ▷ 10:20 경주박물관 도착
- ▷ 12:10 점심식사
- ▷ 13:20 해누리 역사체험관 (탁본뜨기, 은귀고리 만들기 등)
- ▷ 15:00 첨성대, 안압지 등 경주시내유적탐방
- ▷ 16:10 경주출발 ▷ 17:30 부산 문화회관 도착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0월 당첨자

▶ 10월 12일(금)

마산 문신미술관, 부재산방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김소영(해운대구 우2동)
김혜영(수영구 광안1동)
양덕진(동구 수정5동)
이미순(동래구 사직1동)
이민경(동래구 온천3동)
이영희(사하구 감천1동)
정성운(수영구 남천동)
정이진(북구 화명동)
최은희(부산진구 당감1동)
홍동곤(사하구 신평2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김규성(동래구 안락1동)
박광희(동래구 온천1동)
박선희(사하구 괴정동)
박정자(사하구 하단동)
배정환(남구 대연4동)
엄이숙(남구 용호동)
유분조(해운대구 반여2동)
임서현(서구 아미2가)
이선희(남구 대연4동)
정은하(양산시 중부동)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협력업체 이용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필하모니, 가마골소극장, 부산아쿠아리움 등)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19, 51-1, 68,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 무료운행

출 발 지 : 7번가 피자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지점)

출발시간 : 오후 7시(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베를린의 개풍이

10% 할인



- ▶ 날짜 : 2007. 11. 9(금)~12. 2(일)
- ▶ 시간 : 평일 오후 7:30/토요일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입장권 : 일반 20,000원·학생 15,000원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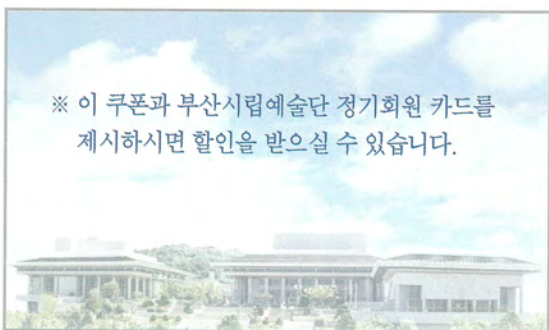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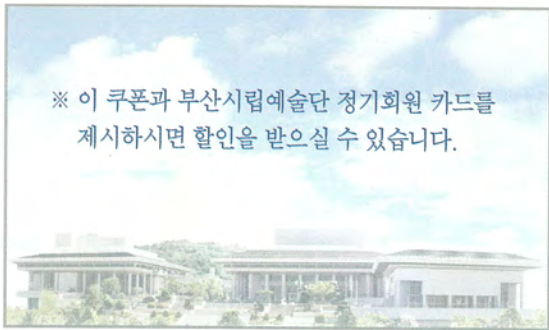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안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 · 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클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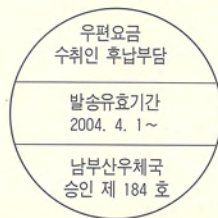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계초대 담당자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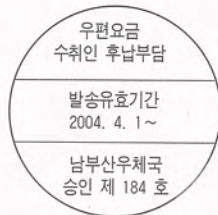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계초대 담당자앞

6 0 8 - 0 2 4

2007 HONEYMOON EVENT

가을 허니문 이벤트

30만원 할인 해드립니다.

사은품 여행용가방(24인치), 여권발급(단수), 1억원여행자보험, 면세점 쿠폰



추천 허니문

**태국/파타야
아이사완 리조트 5일**

₩97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유류할증료, 특별식 3식, 스파체험, 알카자쇼, 코끼리 트래킹, 파타야 나이트 투어, 산호섬 해양스포츠, 호핑투어

**필리핀/보라카이
오션클럽 리조트 5일 (리조트3박)**

₩1,24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유류할증료, 특별식 3식, 황제진주 맛사지, 화이트 비치야간투어, 호핑투어,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플라잉보트

**태국/코사무이
노라빌라 리조트 5일**

₩1,40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공항세, 유류할증료, 특별식 3식, 스파체험, 알카자쇼, 코끼리 트래킹, 파타야 나이트 투어, 산호섬 해양스포츠, 호핑투어

가을 국내 여행

**자연과 함께하는 가을체움
보성녹차/순천 갈대밭 당일여행**

₩40,000원

포함내용

왕복교통, 기사·가이드 팁, 여행자보험, 중식제공, 녹차밭, 다도체험, 낙안읍성, 갈대밭 자유시간

**제주도, 환상의 크루즈여행
제주도 해수온천 3일**

₩109,000원~

포함내용

크루즈 왕복, 선상뷔페, 성판악 휴게소, 화락원, 관광농원, 해수온천욕, 성읍마을, 중국기예단쇼, 일출랜드, 섭지코지 등

**제주일주 알뜰여행
제주 가을여행 3일**

₩20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관광1급숙박, 식사, 용두암, 오설록박물관, 석부작농원, 천지연폭포, 미니랜드, 조랑말타기체험, 일출랜드 등

일본 크루즈 여행

**일본속 네덜란드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 4일**

₩299,000원~

포함내용

크루즈 왕복, 부두세, 여행자보험, 하우스텐보스 1일 프리패스, 천만궁, 관문대교, 후쿠오카시내 관광

**배타고 떠나는 일본 온천여행
북큐슈 온천 3일**

₩329,000원~

포함내용

크루즈 왕복, 부두세, 여행자보험, 온천욕, 남장원, 천만궁, 쿠마모토 성, 가마도지옥, 사루마와시 원숭이 쇼, 유행재배단지

**일본속 네덜란드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히라도 3일**

₩429,000원~

포함내용

패션왕복, 부두세, 팁포함, 여행자 보험, 특급호텔2박 및 온천욕, 사이와이바시, 하우스텐보스 1일 프리패스, 히라도성

프리스타일

**동경 자유여행 3일 ₩385,000원~
오사카 자유여행 3일 ₩280,000원~**

동경: 하라주쿠/시부야/신주쿠- 디즈니랜드-오다이바-하코네-닛코
오사카: 오사카성-신사이바시-유니버설 스튜디오-청수사-사슴공원
포함사항: 왕복항공, 비즈니스급호텔 2박, 샌딩

**홍콩/마카오 자유여행 4일
₩429,000원~**

추천일정

마카오-구룡반도-아마테이-몽콕-센트럴 피크-힐리우드와 성완-완차이와 코즈웨이 베이-홍콩성남부-성바울성당
포함사항: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공항샌딩

**세부 리조트 자유여행 4일
₩554,000원~**

추천일정

전일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 및 해변자유시간
포함사항: 왕복항공, 리조트3박 3조식, 현지핸드폰, 현지공항(리조트) 픽업, 가이드북, 여행자보험, 선택관광 할인혜택

투어편 홈페이지 : www.tourfun.co.kr

o!m 투어편 검색

NAVER 투어편

REiM
첫여행의 스승 (주)레이엠

부산본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가 24-2 독일빌딩 2층 (주)레이엠
서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촌동 631 두산위브센터 930호 (주)레이엠
대구점)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동 2가 (주)레이엠
마산점)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1동 157-1 선메디컬센터 1층 (주)레이엠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619-5 소바안경점 3층 (주)레이엠

대표전화 (국번없이)
1544-2579
(투어친구)

B U S A N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3회 정기연주회

PHILHARMONIC

CONDUCTOR. SUNG KWAK

ORCHESTRA

PIANO. HAE-JUNG KIM

4 3 3 R D

FRIDAY, OCTOBER 12, 2007, 7:30PM

SUBSCRIPTION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C O N C E R T

2007.10.12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홀스트 '행성' ※창원시립합창단



피아노 · 김혜정



지휘 · 광 승

주최 _ 부산광역시 후원 _ 문화마을 만들게 문의 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매 _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365** 영광도서 동보서적 면학도서 남포문고 대한도서 향학서점 ※ 무료셔틀버스 운행
www.ticket365.co.kr



부산시립합창단 제123회 정기연주회
Busan City Chorus

부산시립합창단의 가곡과 민요가 있는 가을



- 고향생각
 - 고향 그리워(만항 시, 이흥림 곡)
 - 고향생각(원계명 시, 작)
- 친구생각 또 어머니 생각
 - 동무생각(이은상 시, 박태준 곡)
 - 옛 이야기(김소월 시, 정세문 곡)
- 사랑에의 그리움
 - 내 마음(김동명 시, 김동진 곡)
 - 저 구름 흘러가는 곳(김용호 시, 김동진 곡)
- 바이올린으로 듣는 그리움/ 바이올린 백재진
 - 향랑(박희환 시, 채동선 곡)
 - 그리운 마음(이거울 시, 김동환 곡)
- 가을풍경
 - 이별의 노래(박목월 시, 김성태 곡)
 - 답답(김태오 시, 나윤영 곡)
-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모습
 - 가교와 천, 후(이은상 시, 김동진 곡)
- 특별초청연주/ 베이스 오현명
 - 꽃잎이(김소월 시, 윤희중 곡)
 - 별래(양명문 시, 김동진 곡)
- 흥겨운 우리 민요모음
 - 민양이리(김소월 곡)
 - 흥겨타령(충청도 민요, 김동진 편곡)
 - 밭노래(김희조 채보, 편곡) 태남동창(김진영)



지휘 김 강 규
(수석지휘자 겸 예술감독)



베이스 오 현 명



바이올린 백 재 진

2007. 10. 18(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607-6125 - 6 www.bschorus.or.kr

인터넷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티켓365 www.ticket365.co.kr